

新관치의 뒷... 은행 경영 '올스톱'

우리銀 '보이지 않는 손' CEO 인사 개입설에 뒤숭숭
KB·하나금융 등 현안 담보로 새해 경영전략 못세워

금융권이 신관치(新官治)에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주요 금융기관 인사에서 발원지 불명의 정실인사가 잇따라 이뤄지는 등 민감한 현안들로 인해 연내 추진해야 할 금융사의 새해 경영전략이 올스톱된 상태다.

특히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선 내년도 경영구상과 인사 등으로 한창 바빠야 할 시기에 정관계의 인사 개입과 학맥, 인맥 중심의 신관치 논란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서금회 멤버인 흥성국 대우증권 사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후보 등을 둘러싼 내정설 논란에 금융권 경영전략과 인사 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우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지난 5일 차기 행장 후보로 결국 내정설 논란의 당사자인 이광구 부행장을 선정했다. 통상 행추위에서 후보를 추천한 후 금융당국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이번엔 보이지 않는 뒷선에서 내정된 채로 행장후보에 임명된 통보가 이뤄졌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 내정자가 소속된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신관치 논란 역시 촉발됐다.

이에 이순우 행장이 추진해 온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론타워가 바뀌며 자칫 민영화가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역시 지배구조

를 문제 삼아 LG손해보험 인수 승인심사를 미루고 있는 금융당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KB금융 회장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당국의 입장 전달 불발과 사외이

사사퇴압박 등 윤 회장 입장에서부터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하나금융 역시 신관치 논란에 맞물린 민감한 현안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주요 경영전략의 발이 묶여 있다. 올 하반기 이슈화된 하나은행 조기 합병은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당초 지난 10월 국정감사 직후 합병 승인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

지 눈치만 보고 있다. 당초 목표인 연내 조기 통합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금융권 고위 인사는 "내년 경영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할 CEO들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며 "금융산업이 낙후된 상황에서 신관치가 구관치를 대체함으로써 연내 마무리돼야 할 금융사 현황들이 담보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수원역~사당역' 79인승 2층버스 시범운행



광역 좌석버스의 입석금지 조치가 유명무실화되면서 정원이 일반버스의 두 배 가까운 79인승의 2층 버스가 시범 운행됐다. 2층 버스는 8일 7770번 버스를 시작으로 김포~서울역, 남양주~잠실 노선 순으로 각각 일주일씩 시범 운행한다.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역에 수원역~사당역 구간을 운행하는 7770번 광역 2층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800만대 맞춰라" MK 특명

현대기아차, 직원의 6촌까지 가족할인 판매 '가속페달'

현대기아차가 정몽구 회장의 "연간 판매 800만대를 넘어서자"는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 할인 혜택을 늘리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달부터 직원의 가족할인 대상을 기존 4촌에서 6촌으로 넓혔다. 이들은 현대기아차를 구매할 때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직원에게는 이달 일부 차종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대상 차종은 아반떼·i30·엑센트·벨로스터다. 최저 가격 1410만원인 아반떼를 직원들이 이달에 구입하면 최저 987만원에 살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달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도 대대적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차는 수입차 보유 고객이 에쿠스를 사면 50만원, 벨로스터·i30·i40을 사면 30만원을 각각 할인해준다. 기아차는 K5 500h의 할인금액을 전달보다 100만원 높은 400만원으로 책정했다.

현대기아차가 판촉을 강화하는 것은 정몽구 회장이 주문한 연간 800만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크게 늘려야 하기 때문이

현대기아차 12월 판매 조건 *출처: 현대기아차

가족할인, 4촌에서 6촌으로 확대 아반떼, i30, 엑센트, 벨로스터 한정수량 최고 30% 할인
현대차 수입차 보유고객 에쿠스 50만원, 벨로스터, i30, i40 30만원 할인 L·F쏘나타 50만원, YF쏘나타 250만원 할인 기아차 K5 500h 400만원, K7 700h 200만원 할인

다. 이 회사는 지난달까지 세계 시장에서 724만5612대를 판매했다. 800만대까지 아직 75만4388대가 남았다. 지난달까지 월 평균 65만8692대(국내 9만3911대·해외 56만4781대) 판매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달에는 월 평균 판매치보다 10만대 이상 더 팔아야 800만대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해 볼 때 매일 3만4290대씩 팔아야 하는 수치다. 현대차 영업점 관계자는 "판매 확대를 위해 생산부터 현장 판촉까지 전사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당국, 결국 가계대출 브레이크

10월 6조4000억↑ 월간 최대폭 증가... DTI·LTV 미세조정 추진

금융당국이 내년에 가계대출 억제책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다각적 대응 카드를 내년 업무계획에 담기로 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3면

10월 중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은 15조 원 늘어 대출채권잔액이 124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대출은 6조4000억원(유동화 잔액 포함 7조2000억원) 늘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

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5조원가량 늘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은행권 저리대출로의 전환대출 추가 대출 등이다.

금융당국은 11월에도 이 같은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LTV와 DTI 규제를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TI의 경우 부채의 인정범위에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포함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전 금융권에 LTV를 70%, DTI를 60%로 단일화한 조치는 손을 대지 않을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kimmj@

데이터 뉴스 Data News

요우커 VIP '저름신' 강림하셨네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VIP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쇼핑에만 5000만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외국인 관광전문여행사 코스모진이 운영하는 코스모진관광R&D(연구·개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VIP 관광'을 요청한 중국인 관광객 5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가 한국에서 경험한 쇼핑 최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이선에 기자 isa@



블랙 프라이데이 '저름신' 주인공은

미국 최대 쇼핑일인 '블랙 프라이데이'(주수감사절에 이어지는 금요일)에 국내에서는 30대 초반 여성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KB국민카드의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인 지난달 28일 KB국민카드 해외 구매를 한 고객은 모두 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29%가 30~35세였다. 특히 30~35세 여성 고객은 11월 평균 8.6%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5.8%포인트 오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박윤희 기자 ellee@

중심을 잡는 언론

연합뉴스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한민국 뉴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취재망을 보유한 연합뉴스는

국내외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합니다.

연합뉴스는 모바일 웹(m.yna.co.kr)과 앱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

Biz 월요일선 17~21면

커버스토리 '브랜드 마케팅' 새바람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인드루이드 앱)

물러나는 구학서

〈전 신세계그룹 회장〉

힘실리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구학서(사진) 신세계 회장이 42년간의 여정을 접고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신세계의 얼굴로 사실상 그룹 경영 전반을 책임져온 구 회장은 전문 경영인으로는 드물게 회장에까지 오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학서 신세계 회장은 지난 11월 30일자로 임원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보유 중이던 신세계 주식 2만4376주(0.25%)에 대한 공시의무가 소멸됐다. 이마트 역시 구 회장이 보유한 6만9019주에 대한 공시의무가 소멸됐다고 공시했다.

전문경영인으로 10년 여정

공식 은퇴... 고문직 맡아

보유지분 2만4376주

“공시의무 소멸됐다” 공시



경영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런 까닭에 지난 2012년 매출감소 등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신세계 그룹이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선 가운데서도 구 회장은 자리를 지키며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등 기존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회장직에서 물러남에 구 전 회장은 신세계 고문으로만 남게 됐으며 향후 2-3년 가량 고문을 맡다가 신세계그룹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구 회장이 공식적으로 그룹 회장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체제가 가속화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희진 기자 heejin@

다급해진 이준우 “인수업체 직접 찾겠다”

〈팬택 대표이사〉

이달말 2차 매각공고 ‘회생 승부수’

개별접촉 통해 신축적 M&A 추진

가격조정·분리매각 수용 의미 해석



이준우(사진) 팬택 대표이사가 팬택 회생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 대표는 인수의향이 있는 업체와의 개별적으로 만나 신축적인 조건을 제시해 팬택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신축적 M&A’라는 단어를 놓고 인수가격 조정은 물론, 더 나아가 분리매각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팬택 회생 분수령인 이달말 2차 매각일정 공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팬택 매각 관련 1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사의 회생과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팬택에 관심이 있었던 국내외 회사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투자 조건 및 구조 등에 대해 보다 신축적 M&A를 추진하겠다”면서 팬택 청산을 막기 위한 2차 M&A 추진을 강조했다.

매각주관사 삼정KPMG는 팬택의 청산가치(1505억원)가 계속가법가치(1114억원)를 391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이에 팬택은 이달 말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청산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21일 마감된 팬택 본입찰에는 단 한 곳의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중국업체 한 곳을 포함한 2-3곳의 업체가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수가격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팬택 본입찰은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인수외의 업체와의 일대 일 접촉 의사를 밝힌 만큼 팬택의 수의계약 추진이 유력 시되고 있다. 팬택은 이달 12일까지 잠재적 투자자들

찾은 뒤 투자여지가 있는 업체와 투자 조건을 협의한 이후 이달 말 2차 매각일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인수 후보자로 중국업체를 포함한 국내외 중견 기업 1-2곳이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높은 인수가격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팬택 인수가격은 청산가치보다 높은 1500억원 이상이 점쳐진다. 국내외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었고 낮은 가격을 앞세운 중소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 정도 투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채권단 손실을 고려할 때 인수가격을 무한정 낮출 수도 없는 일이다.

인수자 찾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팬택의 분리매각안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팬택 생산기지의 김포공장 공장 내 유휴자산은 휴대폰 제조업체에 매각하고 특허권과 브랜드 등은 또 다른 업체에 매각하는 방안이다. 분리매각을 하면 인수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절감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매각작업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관계인 집회에서 “투자자가 없을 경우 김포공장 분리매각 등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선 순위가 높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달 1차 M&A 실패 당시 “김포공장 분리매각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보다 한 걸음 진전된 입장으로서 업계의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김지영 기자 guly@

떠나는 삼성전자 임원 보유주식 ‘엇갈린 선택’

김재관·이철환 사장 등 전량 매각

실적부진 문책성 인사 영향 해석도

윤재호 상무 등 일부는 “계속 보유”



삼성전자 퇴직 임원들이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을 놓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삼성전자 임원인사가 발표된 4일을 기점으로 5일까지 무선사업부 김재관 글로벌영업실장(사장), 이철환 개발담당 사장 등 10명의 퇴직 임원들에 대한 주식 소유 상황 보고서가 올라왔다. 이는 회사 임원 변동이 있을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들이 보유 중인 회사 주식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들 퇴직 임원은 삼성전자 보유 주식에 대해 각각 다른 결정을 내렸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사업 부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 사장과 이 사장은 모두 회사 주식을 처분했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의 보유 주식 3375주를 전량 매각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130만원선인 점을 고려하면 약 43억원을 현금화했다.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하상록 전무도 2009년 1월 취득한 보통주 70주에 대한 변동 내용이 없다고 신고했다.

일각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임원들의 경우 이번 인사에 대한 심심함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 사장단 인사에서 신종균(IM·IT·모바일) 사장은 자리를 지켰지만, 실적이 부진한 무선사업부만 3명의 사장이 동시에 물러났다. 업계는 실적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보고 있다. 2011년 이후 매 분기 삼성전자가 전체 영업이익의 60-70%를 책임지던 IM부문의 비중이 올 3분기 40%대로 추락했다. 더불어 스마트폰 공급량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 등 고전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김 사장과 이 사장, 이둔주 전략마케팅실장 등 3명이 물러나고 홍원표 미디어솔루션센터장이 전사 조직인 글로벌마케팅전략실장으로 이동하면서 총 7명이던 IM부문 사장단은 DS(부품)부문, CE(소비자가전)부문과 동일하게 3명으로 줄었다.

이번 임원인사에서 삼성전자는 승진자(165명)보다 많은 임원이 퇴직하거나 2선으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퇴직 임원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js62@

이투데이의 굿네이비스를 응원합니다



컨테이너 속, 5살 인생

제대로 된 현관문도 없는 컨테이너 박스 안... 문 대신 막아놓은 모기장 안으로 비가 들이치고 한겨울이면 거실에 얼음이 어는 이곳에서 진우(5세, 가명)와 할머니는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 죽고 나면 저거 우에 살런가...”

무심코 하는 이야기에도 금세 그렇그렇한 눈빛이 되어

할머니 품으로 파고드는 아이...

이번 겨울은 또 얼마나 많은 밤을 추위에 떨며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어야 할까요?

할머니 품의 온기만으로 긴 겨울 밤을 견뎌야 하는 진우에게 당신의 체온을 전해주세요

정기후원 신청 (매월 3만원)

1599-0300

정기후원금은 굿네이비스 54개 지부, 97개 사업장을 통해 진우와 같은 처지에 놓인 수많은 빈곤가정 아동을 보호하고 돕기 위한 국내 아동권리보호사업에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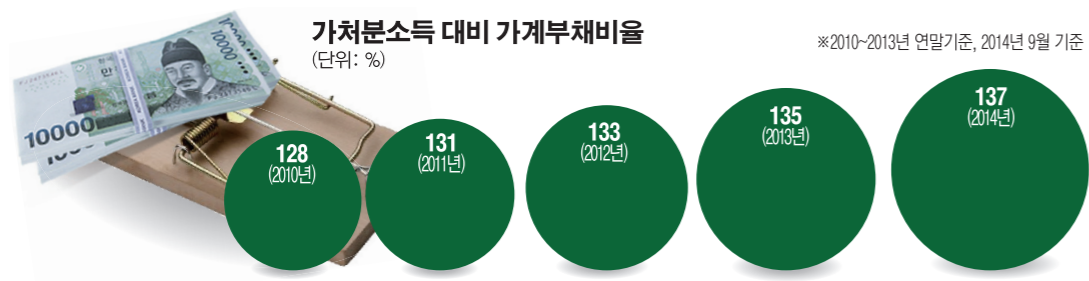
굿네이비스 Good Neighbors

굿네이비스는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33개국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지표는 나아졌지만...“외환위기 때보다 현실은 더 팍팍”



정부의 노력으로 각종 지표는 나아졌지만 오히려 외환 위기 때보다 힘들던 얘기가 많다. 당장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경기도 마찬가지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구로구 새벽 인력시장.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빚더미 가계’ 한국경제 뇌관 터지나

부채비율 137%로 역대 최대치 기록
저금리 등 영향 담보대출 크게 늘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계의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지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우려의 시선이 쏠리는 부분은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01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6월 말(1038조 3000억원)보다 22조원(2.1%) 늘어난 1060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기준 가계신용 증가폭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빚이 많아도 그것을 갚을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계가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처분소득(실소득) 대비 가계부

채비율(잠정)은 13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소득에서 세금과 공적보험료,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원이라면, 빚은 137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 비율은 2010년(연말 기준) 128%에서 2011년 131%, 2012년 133%, 2013년 135% 등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전체 가구 가운데 빚을 지는 가구의 비율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던 가구 중 올해에도 부채가 있는 비율은 30%로 나타난다. 2년 전 빚이 없던 가구 가운데 30%는 올해 빚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미 빚을 지고 있던 가구 중에 같은 기간 빚을 상환한 비율은 16%에 불과하고 나머지 84%는 여전히 빚을 갖고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주된 이유로는 저금리 환경에서 지난 8월 초 시행된 LTV, 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의 완화가 꼽힌다. 실제 이 같은 규제완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9월 말 현재 350조원으로 1년전보다 8.7%나 급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었던 6월(0.4%) 이후 7년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먹고 살기 막막”...보험계약도 깬다

보험금 납입 부담 중도해지 갈수록 늘어
10년 지난 연금저축은 2명 중 1명 해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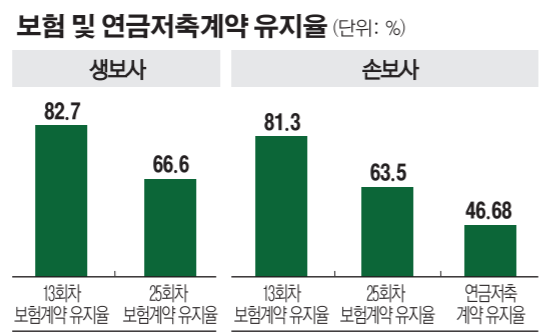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계약 해지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가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보험금 납입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해약하려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보험상품의 경우 2명 중 1명은 해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생명보험사의 13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82.7%, 25회차는 66.6%로 집계됐다. 손해보험회사는 13회차 81.3%, 25회차 63.5%를 각각 나타냈다.

보험계약 유지율이란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년 뒤 얼마나 계약을 유지했는지 나타내는 비율로 가계자금 사정을 단편적으로 알려준다. 생보사의 경우 보험 가입 2년차에 10명 중 3.4명꼴로 보험을 해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손보사의 10년이 지난 연금저축의 계약 유지율 평균은 46.68%로 가입자 중 한 명은 이미 해약한 상태다. 10년 유지율이 70%를 웃도는 영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손보사별로는 한화손해보험 ‘행복한노후연금보험’의 10년 계약유지율이 35%로 가장 낮았고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흥국화재의 주요 연금저축 보험 상품도 40% 이하의 10년차 유지율을 기록했다. 일부 손보사의 특정 상품이 70~80%대 유지율을 기록한 경우도 있었지만 판매 중인 대다수의 상품이 50%



대 이하의 유지율을 거두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보험계약 유지율이 떨어지고, 편찮으면 보험계약 유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매달 10만원대의 보험상품 보험금을 내거나 은퇴 후 혜택을 위해 매달 20만~30만원씩 납입하느니 차라리 적금을 갠 목돈으로 납입분을 당장 지출해야 하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험사를 통해 대출을 받는 보험가입자도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상반기 6월 말 현재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137조원으로 전월에 비해 1조 9000억원(1.4%)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 잔액은 보험계약대출(2000억원)과 주택담보대출(1000억원) 증가 등에 기인해 4000억원(0.5%) 늘어난 86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이 대부분 중도 해지되고 있고 당장 내야 할 보험금마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계약 유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 지원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기자 ns0118@

고통 호소하는 서민들

“외환위기 시절보다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서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15년여간 하다가 여러 사업을 거쳐 5년 전부터는 서울 송파구에서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50대 박씨. 그는 한국사회에서 어엿한 중산층이지만 이같이 하소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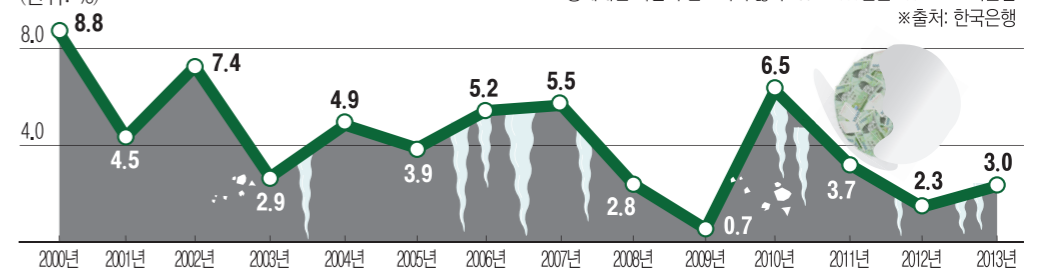
경제지표상으로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시절보다 지금이 더 낫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그때보다 현재가 더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왜일까.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 5~10%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1998년 성장률이 -5.7%로 고꾸라졌다. 이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5%에 비교했을 때 훨씬 상황이 나쁘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회복 속도가 가팔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장률 추이를 보면 1999년 10.7%, 2000년 8.8% 등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010년(6.5%)을 제외하고는 3%대 이하의 저성장세가 지속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기조에 얽매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는 경제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향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경제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최근에는 저성장세가

실질 국내 총생산(GDP)성장률 추이



IMF이후 가파르게 경제회복

부동산 불패신화로 소비 증대

올해는 3%대 저성장세 지속

집값 하락에 대출 부담 커지고

자신감 회복못한 채 경제 경직

수년간 지속되면서 경제 자신감이 꺾였고, 재난에 불과한 지난 4월의 세월호 사태에도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한 모습이다”며 “여기에 외환위기 때는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어렵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나만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경제활동이 더욱 경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위기 시절에는 지금과 달리 ‘자산효과’가 있었다. 자산효과란 자산가치의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지만 순간이었고 부동산 불패 신화로 유효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1호인 부동산 가격은 방향을 아래로 틀었다. 이렇게 되자 부동산 호시절 대출을 받아 투자에 뛰어든 중산층들은 최근 만기일을 맞아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갚느라 허덕거리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높아진 대외의존도도 경제성장을 체감하기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총액을 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눈 대외의존도는 1997년 66.2%에 불과했으나 이후 오르막길을 걸었고 2010년 이후부터는 10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즉 수출 위주의 성장을 하다 보니 내수가 침체하고 일자리 창출도 더뎠던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한 자영업은제로섬 게임으로 치달았다. 이진영 기자 mint@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KU 정식 맞춤형 상담 (12월 12일)

서울 800명, 글로벌 100명 사전접수

홈페이지 <http://enter.konkuk.ac.kr> 신청

건국, 최고를 넘다

의생명과학의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건국대병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의생명과학연구원
수의과대학과 동물병원, 생명특성화대학
동물생명-생명환경과학대학을 연계해
‘KU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 건국대학교

최고 의료가관을 넘어
기초과학에서 신약개발까지
의학·생명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탄탄한 대학·든든한 인재
건국대학교

2015학년도 정시모집

서울캠퍼스 • 원서접수 : 2014년 12월 19일 (금) ~ 12월 23일 (화) • 문의 : 02)450-0007 <http://enter.konkuk.ac.kr>

글로벌캠퍼스 • 원서접수 : 2014년 12월 19일 (금) ~ 12월 24일 (수) • 문의 : 043)840-3000 <http://enter.kku.ac.kr>

출근길 조심조심



전국적으로 밤새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8일 대전시청 앞 눈 쌓인 공원을 출근길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칭찬합시다 홍일표 의원이 추천한 김영환 의원

의사 출신 과기부 장관 역임 '전문성' 계파 매이지 않는 균형감에 열정까지

이해와 협력의 국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본지의 '칭찬합시다' 기획 두 번째 주인공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주 본지가 첫 선정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지목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 활동 등 홍 의원과 함께 했고, 특히 전력대란 사태 때 위원장으로 맹활약했다. 학창 시절 노동운동을 하며 취미였던 전기공사가 1급을 비롯한 6개의 자격증도 이때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홍 의원은 김 의원을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칭찬했다. 첫째는 홍 의원 본인처럼 계파에 매이지 않는 균형감을 갖춘 데다 당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용기를 지녔다는 점이고, 둘째는 도전정신과 열정이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홍 의원께서 과분한 정찬을 해주셨다"면서 "완료형이 아니라 앞으로 열정과 도전정신을 갖고 경륜을 쌓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4선의 중진인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 비노(비노무현) 인사로, 줄곧 계파정치 타파를 주장해 왔다. 지난 대선에선 당 경선에 나섰고, 최근엔 "차기 당권은 문재인대 비문재인 구도"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내년 2월 당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는 등 경륜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

았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 활동 등 홍 의원과 함께 했고, 특히 전력대란 사태 때 위원장으로 맹활약했다. 학창 시절 노동운동을 하며 취미였던 전기공사가 1급을 비롯한 6개의 자격증도 이때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홍 의원께서 과분한 정찬을 해주셨다"면서 "완료형이 아니라 앞으로 열정과 도전정신을 갖고 경륜을 쌓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정부부처 규제완화 수용률 35% 불과

19개 부처 민원 4502건 중 1573건만 '수용' 답변 올려 대부분 국민생활 관련 사항 기업·중소 개선 여전히 낮아

부처별 규제수용률	비율
기획재정부	30.6%
국토교통부	30.3%
문화체육관광부	29.9%
해양수산부	29.4%
금융위원회	27.5%
법무부	25.4%

※출처: 규제정보포털(12월 8일 기준)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로 구조개혁을 제시했지만, 핵심축인 규제완화를 위한 각 부처의 추진 실적은 30%대에 머물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각 부처의 평균 규제건의 수용률은 이날 기준 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만들어진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19개 부처가 답변한 민원건수는 4502건으로, 이 중 1573건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국민이 규제정보포털의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사항을 올리면 담당 부처는 14일 이내

에 건의 수용 여부를 답변하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 기관장 책임 아래 3개월 내에 기존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하게 돼 있다.

기관별로는 여성가족부가 28건 중 18건을 수용해 수용률 64.3%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92건/197건, 46.7%), 미래창조과학부(46건/103건, 44.7%), 산업통상자원부(109건/250건, 43.6%), 교육부(63건/146건, 43.2%)가 수용률 40%를 웃돌며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48건/157건, 30.6%), 국토교통부(513건/1695건, 30.3%), 문화체육관광부(26건/87건,

29.9%), 해양수산부(30건/102건, 29.4%), 금융위원회(64건/233건, 27.5%), 법무부(29건/114건, 25.4%) 등은 30% 이하의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이는 서비스업·부동산·금융 규제개혁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특허청·중소기업청·국제경제 등 16개청의 평균 수용률은 45%로 부처보다 사정이 나았지만 여전히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를 '암덩어리'에 이어 '단두대'라는 극한 용어에 빗대면서 규제 혁파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규제개혁의 성과가 기대보다 더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 부처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것이다. 정부도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일몰제 확대 등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막바지 규제개혁 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부, 농식품부 등 일부 부처는 장관까지 나서서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다수 부처는 규제 걸림돌 해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말까지 규제신문고로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 8957건 중 2754건을 받아들여 수용률이 31.9%로 집계됐다고 밝히면서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접수한 300건의 30배 상당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8%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아진 결과라고 최근 설명했다. 특히 '규제신문고'가 본격 운영된 지 8개월이 지나면서 규제 개선의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건의가 수용돼 규제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2754건 중에는 국민생활 관련 1116건(40.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관련이 925건(33.6%)으로 많았고, 기업 관련 규제개선 건수는 638건으로 23.2%에 불과했다. 기업들의 규제 체감도가 낮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전민정 기자 puri21@

당 지도부와 대화하는 차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찬에 참석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시

안착이간 복권 당첨금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당첨금 재원으로 활용

미수령 당첨금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차차기 당첨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복권 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복권 구매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복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로또(온라인복권)와 연금복권 등 당첨자가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재원은 국가의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인다. 로또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에 편입된 당첨금이 2078억554만원에 달했다. 당첨금이 10억원대에 이르는 1등 당첨자를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도 5년간 17명으로, 미수령액이 총 326억5150만원이 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미수령 당첨금을 소멸시효가 끝난 날 기준으로 차차기 회차의 총 당첨금 재원에 넣어 이를 복권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영 기자 sympark@

與 “공무원 정년 최장 65세” 검토

청와대 실무회동 의견 접근 '연금개혁' 충격 완화 차원 신규채용 등 부작용 우려

새누리당이 임금피크제를 연동해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충격 완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지만, 신규 채용 축소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몇 차례 사전 당정청 실무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특히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장기적으로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대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해 전체적으로 퇴직시점까지 받아오는 보수 총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는 재정 중립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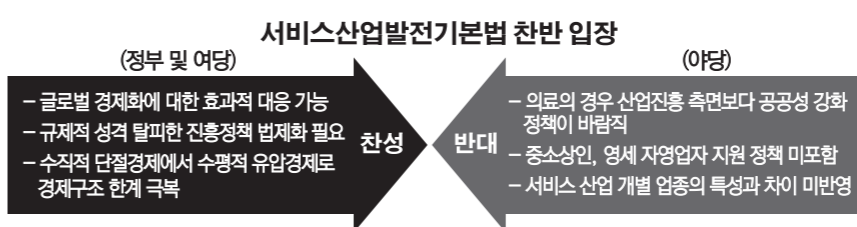
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 공무원연금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을 놓고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 당정 협의를 거쳐 안을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직급 간 형평성이 나고령화사회 추세로 볼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지만, 인건비를 제외해도 정년연장에 따른 운영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사회에서 자칫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정년연장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익중 기자 zerg@

의료민영화에 발목잡힌 서비스기본법

기재위 심의 앞서 공청회 열어 與 “경제활성화 위해 필요하다” 野 “의료비 폭등·골목상권 침체” 전문가들도 상반된 주장 펼쳐



3년 가까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내디디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법제화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고된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처리를 거듭 주장하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의 전조전이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서비스산업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가장 처리가 시급한 9개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꼽으며 주목받아 왔다. 이 법안은 의료민영화에 따른 의료비 폭

등 우려와 골목상권을 침체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다 여야 합의로 지난달 14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야가 여전히 법안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전문가들이 내수산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어떤 방식이든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해 좋은 안으로(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산업 내에서 자연스럽게 변화와 융합이 이뤄지고 있

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영리성을 강화해 공공성을 저하하는 포괄적 규제 완화법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현실화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 견해를 드러냈다.

반면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경제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 이처럼 통합적·확실적 전략보다 엄중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무노동 무임금’ 등 새누리 혁신안 오늘 찬반투표

새누리당은 8일 2차 혁신 의원총회를 열어 '무노동 무임금'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 차원에서 추진 중인 당 1차 혁신과제의 당론 채택 여부를 찬반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당 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총의를 모으기 어렵다고 판단,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 측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김무성 대표가 일전에 혁신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번 의총에서 그대로 추진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당 혁신위(위원장 김문수)가 내놓은 혁신안은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위임 등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11일 열린 1차 혁신 의총에서 김 위원장이 혁신안을 당내 보고한 뒤 추진을 시도했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김익중 기자 zerg@

발전 5개사,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관심

국내 화력발전 5개 회사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정책 타당성과 경제성을 따져보고 있다.

남북한과 러시아의 3각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5·24 남북경제협력협정의 예외로 간주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들 발전회사의 사업 참여가 성사되면 남북경협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받는 러시아산 유엔탄을 국내 전력 생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건물 외벽 증설·해체 시·군·구 허가받아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늘리거나 해체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물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된다. 대수선은 기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 수선·변경하는 행위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초 붕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건설, 홀름(눈-비의 배출을 위해 설치한 관)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지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박성영 기자 sympark@

‘파밍사기’ 고객 책임이나, 은행 책임이나

올 10월말까지 642억 피해·신고 건수 1만4412건
NH농협 상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내일 판결
공인인증서 ‘위조’로 판명되면 은행 책임 가능성

서울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A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보안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떴고, 김씨는 정보를 입력했다. 며칠 뒤 김씨의 계좌에서는 1500만원이 빠져나갔고, 김씨가 접속한 은행 웹사이트는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범죄자들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하는 ‘파밍(Pharming)’ 수법에 걸려든 것이다.

최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에 따르면 파밍 사기 피해액은 2011년 72억원에서 2012년 349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546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10월까지의 집계액만 642억원에 달한다. 파밍 사기의 신고 건수도 2011년 1373건, 2012년 7564건, 2013년 1만5206건으로 급증했

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 4412건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파밍사기 피해자 우모씨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일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8월 우씨는 사기 조직이 만든 가짜 농협은행 사이트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했고, 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사기조직은 우씨의 계좌에서 6000여만원을 빼갔다.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된 과정을 ‘위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면책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은행 이용 고객을 보호하는 본



문 규정에 충실하면 파밍사기에서 재발급되는 공인인증서 등은 ‘위조’가 돼 은행기관이 책임질 여지가 넓어진다. 반대로 단서 조항에 중점을 두게 되면 실수로 속아넘어가 개인정보를 입력한 고객의 잘못이 있으므로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은행 측에서는 고객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우씨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사기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도 성급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씨 측은 농협은행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원인이 됐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면 우씨 컴퓨터가 해킹당해 파밍사기의 원인이 된 악성코드가 생성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파밍사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씨는 또 파밍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은행 측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장치를 개발하고,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FDS)을 구축했어야 했는데, 농협은행이 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우씨가 넘겨준 것이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냐도 중요한 쟁점이다. 우씨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넘겨줬지만 공인인증서를 실제로 넘겨준 것은 아니다. 우씨가 넘겨준 개인정보 자체를 ‘접근매체’로 보게 되면 은행이 면책될 여지가 그만큼 넓어진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인인증서만을 접근매체로 인정한다면, 이번 사건에서 우씨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점프! 달려!... 애견쇼



애견들이 7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에서 열린 '2014 서울 FCI 국제 도그쇼'에 참가해 핸들링 심사를 받고 있다. 한국애견연맹(KKF)이 주최한 이번 행사엔 국내 및 해외를 포함해 총 1890두의 견종이 참가하고, 올 해 최고의 핸들러를 뽑는 핸들링 컨테스트와 애견 미용 컨테스트도 함께 열렸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륙 직전 항공기 멈춘 조현아

“서비스 엉망” 승무원 혼내고 사무장 하차... “월권행위” 비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를 후진시켜 승객 수백명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부사장이 부사장 지위를 남용한 월권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항공업계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항공기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0시 50분 인턴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가 후진,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면서 출발이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1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은 한 승무원이 봉지째 견과류를 건네자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면서 화를 냈다. 승객의 의향을 묻은 다음에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하는데 무작정 봉지

째 갖다주는 등 규정에 어긋난 서비스를 지적한 것. 이어 조 부사장은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무장이 태블릿PC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내리도록 했다. 결국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후진했고, 해당 사무장은 12시간을 기다려 오후 2시에 출발하는 KE082편을 타고 귀국했다.

그러나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가장이 한다(60조 1항)’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 부사장이 지나치게 행동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이) 기내의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이 당황했는지 매뉴얼을 제대로 못 찾으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사무장에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KE086 항공기의 인준공황도 잠시 예정시간보다 11분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정호진 기자 js62@

신일산업 경영권 다툼 고소 사건으로 비화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 다툼이 고소사건으로 비화돼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조만간 신일산업 인수합병(M&A)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송권영 신일산업 대표이사의 고소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이사는 류모씨 등 7명이 회사 내부정보를 빼돌려 적대적 M&A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대표이사를 고소인 자격으로, 류씨 등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신일산업은 지난 1일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측과 사측이 대립하다 임시 주주총회를 따로 개최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효력 발생을 두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길 기자 jyg97@

어느 대학을 갈까



한 수험생이 7일 서울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2015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에 참석해 메모를 하고 있다. 진학사가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2015학년도 입시특징과 전망', 'How to 모의자란', 'DIY! 내 성적에 맞는 군별 대학 조합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백 강제 관촉행사 요구 “과징금 부과는 정당” 판결

롯데백화점이 납품업자들로부터 경쟁 배화점 매출자료를 제공받아 강제로 관촉 행사를 요구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롯데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의 횡포를 부린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백화점은 백화점업계 1위의 대규모 유통업자이며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품업자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들에 매출 자료를 요구해 경쟁 배화점에 비해 자사의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관촉 행사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자 롯데 측은 소송을 냈다. 최영길 기자 jyg97@

野, 정윤희 고발... “김기춘·이재만 국회 나와라”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
의혹 관계자 모두 출석 요구
與 “무분별 정치공세 중단”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담은 문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야당은 7일 정윤희씨 등 관련 인사들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국회 소환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주가 정윤희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짜라시야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야당에게는 반발을, 국민들에게 의문을, 검찰에게 부담을 주면서 오히려 사태를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상사’ 의혹을 받는 인사 등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수사의뢰했다. 또 16~17일 열리는 긴급 현안 질문에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도 주



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새정치연합 비선실세국정개입 진상조사단이 고발장을 들고 언론으로 들어서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 김민기 의원, 박병계 의원, 박수현 의원.

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5일 국회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해 비선실세 의혹 관계자들을 모두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7월과 10월 국회에서 ‘맹세코 비선라인은 없다’고 밝힌 김기춘 비서실장과 지난 7월 국회에서 ‘정윤희씨와 2003년이나 2004년 이후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말한 이재만 비서관에게 위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운영위는 여당의 불참에 따라 반쪽짜리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또 남은 국회 일정은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출석 요구 등이 거부될 경우 ‘국회 보이콧’ 강행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정윤희씨 변호인을 통해 9~10일 중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에 대한 조사는 문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부가 맡을 예정이다. 정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10일께 출석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출석하면 실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 모임을 가졌는지, 김기춘 비서실장 교제 등을 논의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윤필호·최영길 기자 beetlebum@

‘전라도 출신 채용 거부’ 남양공업 3년전에도 똑같은 사원모집 게시

파문일자 “사실 아니다” 해명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전라도 출신을 거부하는 채용공고를 올려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인 남양공업은 전라도 지역 출신을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한 채용공고를 냈다. 여기에 이 회사가 3년 전에도 전라도 출신 채용을 거부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며 ‘특정지역 채용 거부’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해당 채용공고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은 남양공업의 전라도 출신 채용거부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호남미래포럼 관계자는 “남양공업이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

를 명시해 큰 사회적 파문과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류 보편가치인 인권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고용촉진기본법 등 여러 실정법의 명문 규정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남양공업은 채용 공고를 삭제하고 해명을 내놨다. 이 회사는 “최근 모 채용 사이트에 사실과 다른 채용 공고가 게재되어 기사화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며 “회사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지역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남양공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채용대행사의 공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채용공고에서 거론된 특정지역 출신 다수가 남양공업에서 근무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현대차노조, 전 집행부에 구상금 5억 요구

현대자동차 노조가 2006년 노조 집행부의 비리와 관련해 당시 위원장과 간부 5명으로부터 구상금 5억원을 받아내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노조가 전 집행부 임원 5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구상금은 전 노조 집행부(위원장 박유기) 시절 ‘조합원 선불비리’로 인해 발생한 조합원 손해금이다. 금액은 5억1000만원으로 당시 집행부 임원 5명이 연대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

사건은 박 위원장이 현대차 노조창립기념품 납품을 맡은 업체에 4억원을 외환은행에서 대출받도록 해주면서 비롯됐다.

박 위원장은 대출양상을 하면서 노조인감을 찍은 대금지급 확인서를 은행에 내줬다. 이후 대출받은 업체 대표가 잡혀 돈이 회수되지 않았다. 외환은행은 확인서를 근거로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자 등을 포함해 5억4000만원을 받아갔다.

2011년 7월 울산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위원장과 전 임원 5명이 연대해서 노조에 5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당사자들은 2년 넘도록 돈을 내지 않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KB, LIG손보 인수 12일 분수령

이사회후 추가 사퇴 표명 예정
금융위 승인여부에 촉각 곤두

KB 내분사태 책임론이 일고 있는 KB금융지주 일부 사외이사들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을 권고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금융당국 압박에 결국 일부 사외이사들이 '백기'를 든 것이다. LIG손보 인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규 회장과 8명의 사외이사들은 지난 5일 서울 명동 KB금융 본사에서 확대경영전략위원회를 열고 거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사외이사들은 '대의'를 위해 즉각 사퇴해야한다'와 '당국의 압박에 당장 물러날수는 없다'란 입장으로 나뉘어 격론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즉각 사퇴를 주장하던 고승의 이사는 사외이사들간 입장이 정리되기도 전에 이사회 사무국을 통해 사퇴를 알렸다. 몇몇 사외이사들도 오는 12일 임시 이사회에서 사퇴를 표명할 예정이다. 앞서 이사회 '좌장'인 이경재 의장은 지난달 21일 윤종규 회장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외이사들의 즉각사퇴와 내년 임기 종료되는 사외이사들의 자연스런 퇴진을 감안하면 이사회 과반수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LIG손보 인수로 발을 동동 구르던 윤종규 회장은 한숨을 돌렸다. 금융위가 요구하던 사외이사 퇴진이 일부 충족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LIG손보 인수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외이사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 금융당국이 일부 이사진들의 퇴진에도 불구하고 LIG손보 편입 승인을 미루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A금융사 관계자는 "KB금융 사외이사들이 내분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은 분명 책임이 있지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며 "신관치 논란 속에서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이 교체되면 금융당국도 더 이상 LIG손보 인수를 미루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KB금융이 LIG손보를 경영할 능력이 충분한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는 KB금융 임시이사회 예정일인 12일에 종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일 사외이사 거취와 더불어 지배구조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24일 편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2014 금융사 CEO 성적표 ⑤ 서진원 신한은행장

'KT ENS' 비켜간 리스크 관리 두각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올해 여신성장률과 리스크 관리에서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냈다. 각종 금융사고와 그 뒷수습 과정이 시중은행들의 성적표를 갈라놓은 가운데 별다른 금융사고가 없었던 신한은행은 위험관리와 수익성에서 독주체제를 굳혔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서 행장이 무난하게 연임에도 성공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올 초 일부 은행에 타격을 안겨준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연루되지 않았다. 비은행계열사 여신만 수십억 있었을 뿐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발생한 모뉴엘 사태도 완전히 비켜갔다. 신한은행도 당초 여신이 있었으나 지난해 이상 징후를 느끼고 이미 거래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

신한은행이 각종 사건·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비용을 줄이고 우량 대출 자산을 많이 확보해 성장 기반을 다진 게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서 행장은 이 같은 노력을 압도적인 실적으로 보여줬다. 신한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당기순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시중은행 전체 순이익의 4분의 1을 차지한 상태다.

올 상반기에는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다. 특히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 자본순이익률(ROE)이나 총자산순이익률(ROA)도



이상징후 거래 정리...모뉴엘 사태도 내실경영 고삐 죄며 우량 대출 확보
3분기 당기순익 1조 돌파 상승장구 은퇴시장 새동력...여신성장 독보적

시중은행 전체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3분기 중 신한은행은 우량 대출중심의 질적 성장과 유동성 예금 중심의 예수금 증가를 통해 예대율 98.7%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대손비용은 3분기 누적 37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9% 줄었으며, 연체율은 0.43%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 행장은 신한금융그룹이 대대적으로 추진한 은퇴시장 공략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는 지난 4월 브랜드 출범 후 8개월 만에 미래설계통장 70만좌, 은퇴 상품 판매액 2조원을 돌파

했다. 신한은행의 전체 은퇴상품 규모는 올해 3조원이 증가해 연말에는 2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거침없는 질주에도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치 의혹 등 민감한 속제가 남아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신한은행이 지난해까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의 지인에 대해 불법 계좌조치를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신한사태와 관련해 고개 거래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서 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민지 기자 kimmj@

기업 문서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YES.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기업 정보화를 선도해온 더존, 시대를 앞선 기술로 기업의 각종 IT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존의 클라우드 플랫폼은 문서 중앙화로

문서의 보안을 강화 함으로써,

소중한 고객의 개인 정보와 기업의 문서 및 데이터의

유실·유출을 방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안전한 문서 관리 방법, 더존과 상의하세요

더존 DUZON Your Business Infra 1688-5000

www.duzon.co.kr

#혁신적 기업환경 IT솔루션

더존 기업클라우드

클라우드를 통한 문서중앙화

클라우드를 통해 사내 문서를 집중 관리할 수 있고 문서 별 권한이 지정되어 문서보안 또한 강화됩니다.

- 생성된 모든 문서 및 데이터를 기업 전용 클라우드 센터에 저장, 기업의 지적 자산 축적 및 활용
- 기업의 중요 문서, 고객 개인 정보까지 사용자 별 권한에 따라 접근 제한

문서의 Life Cycle 관리

문서의 생성부터 유통의 흐름까지 한 곳에서 통제되어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합니다.

- 파일의 생성부터 수정·복사·이동·삭제 등 Life Cycle 감시
- 이동형 저장 장치 및 온라인 프린터 사용까지 모두 통제 관리

문서 자산의 효과적인 축적 및 이용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해 기업의 지식 및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통합 축적합니다.

- 사내에 분산된 데이터를 집중화하여 업무 속도와 생산성 향상
- 문서중앙화 관리나 스마트워크를 위한 추가 솔루션 구축 없이도 동일한 효과

금융위, 내년부터 VAN사 직접 감독

여신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통과 전망

IC단말기 도입 속도...제도권 편입 추진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용카드 밴(VAN) 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내년 하반기 부터 금융위원회로 이관 된다. 또 밴사의 설립 요건과 신용정보 보호 등 감독이 강화된다.

8일 국회 및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밴사도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고 밴사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밴사에 거래승인 및 전표매입 업무,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현재 13개 밴사와 약 2000개의 밴대리점이 있다. 밴사는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돼 있어 금융당국이 밴사와 밴대리점에 대한 직접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밴사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향후 밴사는 일정한 설립 요건(자본금,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결제의 IT안전성 확보, 신용정보 보호, 밴대리점 관리 의무 등이 부여된다.

거래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 유지에 상당금액을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용카드 결제를 독점처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위반시 해당 가맹점 및 밴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개정안에는 밴사들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급할 때 정부가 정하는 표준에 맞게 만들고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은 금융위에 등록된 단말기만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IC단말기 전환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단말기 220만대 중 절반 수준인 약 110만대(POS 34만대 포함)에 IC카드 단말기 설치가 필요하다.

밴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리베이트 금지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밴등록제 및 단말기등록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밴 업계 관계자는 "밴사에 모든 책임을 지운다는 것인데 문제는 자영업자 조직인 밴대리점이나 포스트단말기 제조업체도 밴사가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엘러 기자 ellee@

경비파견업체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내린다

내년부터 시행...재산종합보험료도 인하

경비파견업체가 가입하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료가 인하된다. 보험개발원이 기존 협의요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참조 순보험요율을 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비파견업체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영세해 보험 가입을 꺼렸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할 길이 없어 의뢰주와 마찰은 물론 경비원들의 직업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번 보험개발원의 참조 순보험요율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낮아져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참조 순보험요율 산출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요율을 내기로 했다. 지난 3-5년간 통계 집적을 통해 요율을 산출한 것으로, 기존 협의요율 대비 평균 8% 인하된 요율이며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협의요율은 확실한 통계가 없을 때 재보험사를 통해 받는 요율이다.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경비업무로 인한 3차 배상책임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경비업체와 의뢰주간 분쟁을 막는 중요한 보험이다. 하지만 의무보험이 아니라서 가입자 증가가 어려웠다.

실제로 LIG손해보험의 경비업자배상책임보험 판매 실적은 2014년 1-11월 109건·원수보험료 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11건·원수보험료 2억8000만원 을 기록한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또 보험개발원은 재산종합보험에 대한 참조 순보험요율을 내년 4월 1일에 낼 예정이다. 재산종합보험에 대한 참조 순보험요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산종합보험 시장은 1조원으로 이번 요율 산출로 인해 시장 확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참조 순보험요율은 200억원 이하 소액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그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협의요율로 사용된다.

삼성화재의 재산종합보험(기업성 종합보험) 실적은 원수보험료가 △2010년 3558억원 △2011년 4107억원 △2012년 4542억원 △2013년 4972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김구기 기자 kkk@

자동차 '투톱' 실적 급감

made in japan

수난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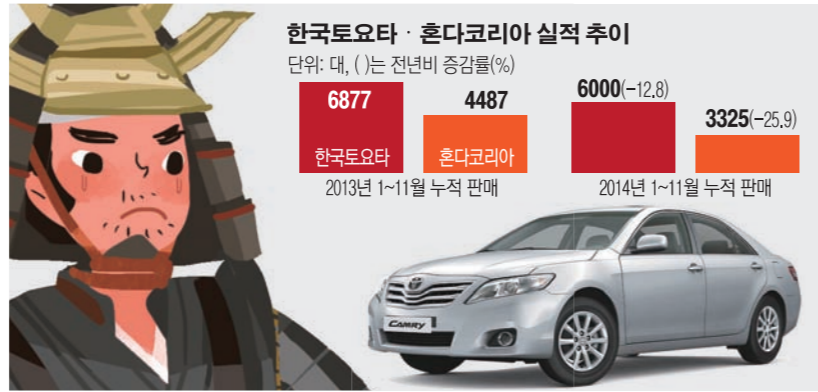
화장품 수입규모 내리막

일본자동차의 대표 주자인 토요타와 혼다가 국내시장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입차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토요타와 혼다의 국내 판매량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까지 한국토요타(렉서스 제외)의 누적 판매량은 6000대로 전년 6877대 보다 12.8% 하락했다. 같은 기간 혼다코리아의 판매량은 지난해 4487대에 비해 25.9% 감소한 3325대에 그치면서 점유율이 1%대에 머물렀다.

양사의 실적 부진은 국내시장서 수입차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상승장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올해 전체 수입차 판매량은 지난달까지 모두 17만923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늘었다. 이는 올해 수입차업계의 판매량 목표치인 17만4000대를 넘어선 실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일본 자동차 실적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올해 11월까지 국내 시장서 2만1347대를 판매해 전년(2만688대)보다 6.4%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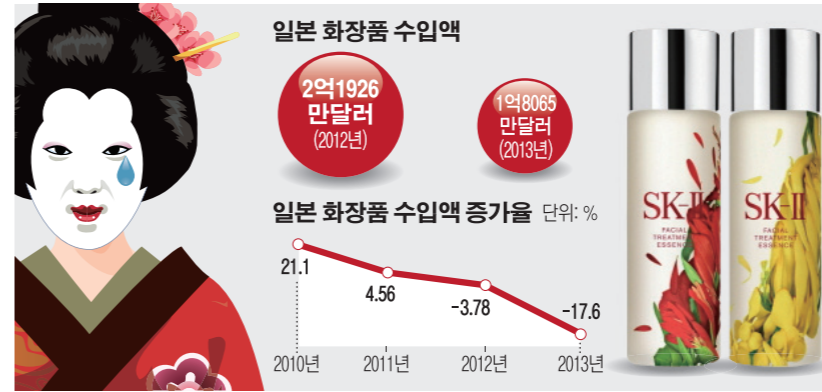


올 수입차 실적 호조세 불구 토요타 누적 판매량 6877대 지난해보다 12.8%나 하락 혼다코리아도 25.9% 떨어져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올해 말, 신차들이 쏟아지는 바람에 실적이 지난해에 미치지 못했다"며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토요타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는 올해 11월 까지 5690대를 판매해 전년(4805)보다 18.4% 늘었다. 한국토요타와 혼다 코리아는 최근 신차를 내놓으면서 전 모델과 가격을 동결하며 판매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토요타는 지난달 18일 신형 캠리를 출시, 분위기 쇠신에 나섰다. 혼다코리아도 지난 3일 '뉴 CR-V'를 출시하고 글로벌 SUV 격전지인 국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범근 기자 nova@



국내 화장품 시장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일본 화장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 화장품의 성장세는 뚜렷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II가 이달 들어 면세점 일부 제품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가격은 기존 171달러에서 167달러로 4달러(2.3%) 내렸다.

회사 측은 환율(엔저)에 따른 가격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2년 동안 엔저 현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고가 정책을 고수했던 만큼, 가격인하는 판매하락을

SK-II, 일부 제품 가격 인하 판매하락 막기 위한 특단조치 시세이도·슈에무라 매장 축소 오르비스 내년 한국법인 청산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SK-II는 롯데면세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도 내국인 매출 '빅5' 브

랜드에서 밀려났고, 백화점에서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다른 일본 화장품 브랜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시세이도와 슈에무라도 백화점 개편 시기마다 매장 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 7월 온라인·통신판매 중단 선언했던 오르비스는 내년 2월 한국법인인을 청산한다. DHC는 지난해 오프라인 매장사업을 접었다.

일본 화장품 수입 규모도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화장품 수입액은 2012년 약 2억1926만 달러(약 2389억원)에서 지난해 1억8065만 달러(약 1968억원)로 줄었다. 2010년 21.1%였던 수입액 증가율도 원전사고가 터진 2011년 4.56%, 2012년 -3.78%, 2013년 -17.6%로 역성장했다.

반면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성장세가 가파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국내 화장품 소매판매액(간접세 제외)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4조1696억원을 기록, 분기 기준으로 첫 4조원을 돌파했다.

이선애 기자 isa@

“내년 5세대 통신 전환점 개인이 직접 콘텐츠 창조”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이상철(사진)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내년을 5세대(5G) 이동통신으로 접어드는 전환점으로 보고, 콘텐츠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생활이 바뀌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G는 LTE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 서비스로 5년 뒤인 2020년경 본격 상용화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센서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인프라 확장에 따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창조하게 될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이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0월부터 시작된 단말기용 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단통법이 기기변경과 신규가입, 번호이동 간 보조금을 똑같이 주도록 강제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타 통신사로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나 비용이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의 수준을 신화하기 위해서도 번호이동에 대한 보조금 규제는 완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논쟁이 일고 있는 ‘요금인가제’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을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통신요금의 지금도 인가 없이 통신사 마음대로 내리고 있다”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에 대한 인가를 폐지하자는 건데, 이는 가계통신비 인상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제 기자 psi@

동부대우전자, 인테리어냉장고 ‘더 클래식’ 출시



동부대우전자는 120ℓ, 80ℓ급 소형 인테리어냉장고 ‘더 클래식’ 8종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소형냉장고는 백색 또는 메탈 위주의 기존의 냉장고와는 달리 크림화이트, 민트그린, 레드, 블랙 등 화려한 색상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120ℓ급이 60만원대, 80ℓ급이 50만원대다. 사진제공 동부대우전자

쌍용차 소형 SUV ‘티볼리’ 개성만점

쌍용자동차는 내년 1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 SUV ‘티볼리’의 개성과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사양들과 이미지를 8일 공개했다.

티볼리는 국내 최초로 ‘6컬러 클러스터’를 적용해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미터 클러스터(계기판)를 스레드 △블루 △스카이블루 △옐로 △화이트 그리고 △블랙의 6가지 색상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국내 최초로 미터 클러스터의 조명을 완전히 끌 수 있도록 ‘폴 오프’ 기능을 제공해 야간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행을 돕는다.



티볼리는 또 동급 최초로 ‘스포티 디렉트 스티어링휠’을 채택했다. 스포츠카에 주로 사용되는 디렉트 스티어링휠은 하단을 수평으로 처리해 스포티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대형세단에 사용되는 최고급 가죽으로 휠을 감싸 시각적, 촉각적 만족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동급 최초로 열선을 적용해 겨울철에 따뜻하고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다.

쌍용차는 티볼리 출시에 앞서 온라인을 통해 후한지의 풍광 열아름은 강과 급경사 다운힐 등 극한환경에서의 주행시험 모습을 담은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달 25일 쌍용차는 티볼리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티볼리는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자연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휴양도시 이트름으로, 유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회사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김범근 기자 nova@

국내 최초 ‘6컬러 클러스터’ 스포티 디렉트 스티어링휠’ 채택

을 선사한다. 여기에 동급 최초로 열선을 적용해 겨울철에 따뜻하고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다.

쌍용차는 티볼리 출시에 앞서 온라인을 통해 후한지의 풍광 열아름은 강과 급경사 다운힐 등 극한환경에서의 주행시험 모습을 담은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달 25일 쌍용차는 티볼리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티볼리는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자연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휴양도시 이트름으로, 유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회사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김범근 기자 nova@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 6000명으로 확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지원 사업 ‘내일채움공제’가 내년 대폭 확대된다. 가입자수를 6000명까지 늘리고, 가입 문턱도 낮춰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8일 중기청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목

표를 6000명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 올해 1년차 목표였던 1600명에 비해 275%나 증가한 규모다. 이는 12월 기준 가입자가 2100여명에 달할 정도로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핵심인력과 해당 기업

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핵심인력이 5년간 장기재직하면 전체 적립금을 성과급으로 제공하는 중기청의 대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이다. 올해 13억8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운영되고 있다.

중진공 구재호 인력개발처장은 “출범 3달 만에 당초 예상 가입자 수를 넘어설 만

큼,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내년부터 가입자 목표를 6000명까지 늘리고, 제도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이 같은 내일채움공제의 인기에 내년 상반기에 제도 개편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과 핵심인력들의 가입 문턱을 더욱 낮추는 것이 개편의 골자다. 현재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기업과 핵심인력의 납입 금액이 5년간 최소 2000구좌(1구좌당 1만원)가 돼야 한다. 김경우 기자 thec98@

LGD, OLED사업 드라이브

전담부서 신설... 여상덕 신임 사장 사업부장 맡아

LG디스플레이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최근 OLED사업부를 신설하고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 승진한 여상덕 사장(CTO, 최고 기술책임자·사진)을 사업부장으로 선임했다.

OLED사업부는 기존에 CTO 산하에 있던 연구조직인 OLED 개발담당과 TV사업부 직속 조직이던 OLED TV사업담당 등 OLED 관련 부서를 통합 관리한다. 더불어 OLED 고객지원 및 기획 관리를 맡아 연구 개발부터 생산·영업까지 모두 관장한다.

OLED는 기존 발광다이오드(LED) 패널과 달리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거론됐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LG전자에 OLED TV용 패널 공급을 시작한 후 중국 등지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번에 OLED 관련 여러 사업을 하나로 합치면서 OLED 사업이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OLED 관련 기술 개발부터 생산·영업을 모두 책임지는 여 사장은 1979년 입사 이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연구개발(R&D), 모바일·OLED사업부장, TV사업부장 등 주



요 부문을 두루 역임한 디스플레이 업계 최고의 기술 전문가다. 그는 2000년 대 초반 LCD가 기술적 특성상 대형 사이즈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업계의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거듭해 42인치와 52인치, 55인치 LC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LCD대형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스마트기기에 최적화된 AH-IPS 기술로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주요 부품인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해 2010~2011년 모바일·OLED사업부문의 큰 성장을 일궈냈다.

여 부사장은 2012년부터 LG디스플레이의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총괄해왔으며 OLED 사업기반 구축 및 핵심 기술·제품 개발로 OLED 사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현대중공업, 대대적 특진인사 단행

대리·과장 승진자 20% 사상 첫 생산직 특진 신설도

현대중공업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대적인 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0월 기준 임원의 31%를 구조조정하고 지난달 과장급 이상 일반 직원들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고강도 사업목표 달성 위한 체제정비를 마무리 지었다.

현대중공업은 7일 “이달 5일 일반 직원 인사를 조기에 실시해 대리·과장 승진자 수를 예년과 비교해 각각 20%씩 상향 조정했다”며 “이들에 대한 특진 연한 범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해당 직급의 의무 근무 연한을 2년 넘게 채우더라도 성과가 뛰어나면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사상 처음 생산직 특진을 신설해 생산직 27명을 최초로

특진시키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와 함께, 기존의 본부장 체제가 단기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각 사업부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본부장 직함을 ‘대표’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사업부문의 기존 부부장이나 부본부장으로서 전권경영을 대폭 이양 받아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사업본부 대표의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미래사업 추진, 원가경쟁력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 해당 본부의 핵심역량 강화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중요하고 역동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우수 인재를 과감히 발탁, 회사의 핵심인력으로 육성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삼성디스플레이 커브드 엣지 디스플레이 개발팀



왼쪽부터 제품개발팀 박종혁 선임연구원, 정철우 수석연구원, 전은영 선임연구원, 남궁준 책임연구원, 마케팅팀 김창호 과장, 제품개발팀 김성국 책임연구원, 마케팅팀 남기현 차장이 갤럭시노트 엣지를 손에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디스플레이

갤노트 엣지 2화면 디자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영감

개발·제조·품질팀 1년 이상 공들여
한쪽 면 흰 플렉시블 2단계 기술
구부러진 면에 패널 등 부착 난제
“향후 웨어러블·자동차까지 확대”

지난 가을, 세계 정보기술(IT) 시장이 깜짝 놀랐다. 얼마 했던 커브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 실물로 공개되자 의심은 곧바로 찬사로 바뀌었다.

세계 최초의 2화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엣지’는 지난 9월 열린 ‘삼성 연례 2014’에서 모습을 드러낸 후 한 달여 만에 공식 출시됐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삼성전자 고위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에) 공급 물량이 탈릴 정도”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갤럭시노트 엣지에 열광하는 이유는 물결처럼 부드럽게 휘어진 측면 화면이 주는 신선함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커브드 엣지 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개발팀이 제조팀, 품질팀과 협업해 2012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공들인 제품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08년부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기판이나, 방지 공정 등을 연구했다.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 2013년 세계 최초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갤럭시 라운드’가 출시됐다.

정철우 제품개발팀 수석연구원은 “이번 커브드 엣지 디스플레이는 한쪽 면이 휘어진 세계 첫 제품이자 삼성의 2단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인 만큼 모든 부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개발자들이 직접 나서 관련 부서의 협력을 이끌어냈고, 결국 양산 설비투자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커브드 엣지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대한 비밀을 귀띔했다. 정 수석은 “커브드 엣지 디스플레이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이 흘러 내리는 사진을 붙인 우체통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막힘없이 시원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인상적이었는데, 커브드 엣지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스마트폰에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자 그 우체통이 생각났다는 것. 정 수석은 “폭포수처럼 엣지 스크린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바뀌는) UI(사용자 환경)가 무척 매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커브드 엣지 디스플레이를 완성하는 데 최대의 적은 바로 ‘공기’였다. 남궁준 책임연구원은 “구부러진 면에 패널과 커버글라스(원도)를 기포 없이 잘 붙이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평면의 부품을 기계적인 결합없이 붙이고, 이렇게 접합된 부품들이 스트레스 없이 작동하게 제어하는 것이 난제였다”고 설명했다.

커브드 엣지 개발팀은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꼬박 새기도 했다. 남궁준 책임연구원은 “개발 기간 팀원들 모두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수석은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향후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 등 IT 분야에 더해 자동차 부문까지 확대·적용될 것”이라며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디스플레이 제품 역시 기존에 쓸 수 없었던 측면을 활용한 정보 전달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기자 js62@

영상 녹화는 기본... 참 똑똑해진 블랙박스

파인디지털 ‘BF550’ 운행정보 기록
팅크웨어 ‘익스트림’ 앞차 추돌 경보

바야흐로 블랙박스 전성시대다. 주변을 살펴보면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블랙박스는 영상 녹화는 기본에 차량의 운행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똑똑한 제품이 많아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8월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운전까지 도울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블랙박스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파인디지털은 운전자에게 차량주행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결합한 ‘BF550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차량주행에서 4대 핵심 정보인 브레이크, 액셀, 핸들방향, 방향 지시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 기록한다.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함께 기록돼 내비게이션의 LCD창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액셀과 브레이크의 혼동 여부, 액셀을 밟는 강도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급발진 문제에도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팅크웨어는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 ‘익스트림 ADAS’를 탑재한 ‘아이네비 QXD900 View+’를 선보였다. 최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아이네비 X1’에도 직



파인디지털 파인드라이브 BF550 패키지.

용되어 있는 차선일람 감지시스템과 앞차 출발 알림 기능이 있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다. 또한 앞차와 안전거리를 인식해 알려주는 전방 추돌 경보시스템이 사고를 방지한다.

블랙박스 전문업체 다분다는 ‘다분다 포커스’를 출시하며 일정 전압과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세이프 가드 기능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겨울철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차량이 방전되는 것을 예방해 준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고 있는 블랙박스는 영상 녹화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편안하게 운전해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많아졌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블랙박스가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방구하기 앱 ‘직방’ 서비스 안성우 채널브리즈 대표

“허위정보 차단...2030에 믿을수 있는 방 제공”

등록된 방 물량 4만5000개 달해
10월말 앱 누적 다운로드 500만건
‘클릭캠페인’ ‘햇걸음보상제’도 시행

“학교 다닐 당시 학교 주변에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각종 부동산 서비스들은 아파트 정보에 집중돼 있었다. 당시에는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정보가 활성화된 시기가 아니라 직접 발품을 팔며 방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것이 별로 없었다”

최근 지하철을 타다 보면 눈에 띄는 광고가 있다. ‘옆집... 개시끄럽네’, ‘방이 너무 좁끼리’ 등의 광고 문구와 동물들의 재미있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방을 구할 때는 ‘직방’이 답이라는 내용이다. 직방을 만든 안성우 채널브리즈 대표를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20~30대에게 필요한 것은 아파트 매매가 아니라 당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전월세방”이라고 말하는 그는 불과 몇 해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직방의 주요 타깃 층이었다. 안 대표는 “직방을 이용하는 사람 중 80%가량이 직장인”이라며 “대학교를 졸업한 뒤 집을 장만하기까지 보통 5~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의 사람들이 우리의 타깃”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우 대표는 스타트업계에서도 선발주자에 속한다. 게임 개발자와 벤처캐피털 심사역을 지



안성우 직방 대표는 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월세집을 구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앱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대현 기자 holjiak@

낸 그는 2010년 채널브리즈를 설립했다. 이후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2012년 직방을 서비스하며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 현재 직방은 33명의 직원이 모여 서비스를 이끌어가고 있다. 직방 앱 누적 다운로드는 올해 3월 100만 건에서 10월에는 500만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앱에 등록되어 있는 방의 물량은 평균 약 4만5000개로 계속 순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아려한 서비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도”라고 말했다. 과거 인터넷을 통해서 방이 있는 것을 보고 갔지만 실제로는 허위매물이었던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클릭캠페인’과 ‘햇걸음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클릭캠페인이란 중개업자가 매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만약 이미 계약이 됐다면 직방에 바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햇걸음보상제는 방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실제로 허위매물이면 보상금 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햇걸음 하게 만든 부동산은 상진아웃제를 적용하고, 반복할 경우 퇴출되기도 한다. 안 대표는 “스스로 허위정보를 관리하는 회의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정도로 중요한 회의”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초창기에 직원들과 함께 직접 방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그렇게 2년 동안 20여만 세대 정도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아 현재 부동산에서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안 대표의 원칙이라면 내부사진과 직방이 원하는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는 “내부사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최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잘 판단해야 한다”며 “오프라인 현장을 이해하는 노력과 경험이 뒷받침돼야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IOPE 스킨리포트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를 만드는 컨디셔닝 효과
스트레스, 먼도, 음주 등 많은 외부 자극들로 남자의 피부컨디션은 계속 떨어집니다. 칙칙하고 거칠어진 피부를 바꾸고 싶다면, 맨 바이오 에센스를 만나보세요. 매일 변화하는 피부컨디션을 빠르게 끌어 올려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기억하세요,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입니다.

3일 후 느껴지고, 14일 후 완성되는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남자 피부

3일 후, 피부 보습력이 증가되는 것을 느꼈다	90.91%
3일 후,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81.82%
7일 후, 피부가 탱글탱글함을 느꼈다	86.36%
7일 후, 피부가 환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95.45%
14일 후, 피부가 전체적으로 좋아짐을 느꼈다	100%

이오페 맨 바이오 에센스 인체적용시험대상 3~14일 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2012.11.6 ~ 2012.11.20 설문대상 23명 대상 / 조사기관 경희대 피부생리공학과 (7일 척도 중 상위 3위를 규정 응답률로 계산)

전국 이리퍼머 대령 마트에서 이오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 | www.iope.co.kr

인사철 맞은 건설업계, 실적따라 희비교차

삼성·GS '박수'... 대우·대림 '정적'

연말을 맞아 건설업계도 각자별 인사 가 시행되며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성과가 좋은 건설사의 경우 대거 승진자를 내며 포상을 받고 있지만 실적이 좋지 않은 건설사의 경우 칼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일 삼성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부사장 3명, 전무 2명, 상무 15명 등 총 20명의 승진자를 배출하며 올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승진자 총수는 지난해보다 1명 적지만 그룹 전체 승진 규모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큰 성과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올해 삼성물산은 최저준 사장 부임 이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며 최근 국내 건설업계를 힘들게 한 해외발 약재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 때문에 9년 만에 시공능력 평가 1위에 오르는 등 내실 있는 성장상을 보였다.

앞서 지난 2일 GS건설은 건축부문 대표인 우무현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또 2명의 상무(플랜트부, 플랜트시운전담당 박준홍·사장직할 사

삼성물산 9년만에 시평 1위

부사장 3명 등 20명 포상

GS건설 부사장 등 3명 승진

현대건설 조직개편 앞두고 긴장

대우건설 회계감리 결과 변수

대림산업 실적악화 문책 예상

업지영II담당 이용준 승진 인사도 실시했다.

이는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인재를 중용하는 방향으로, 전년도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었음을 감안해 조직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기조에서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고 삼성물산 측은 강조했다.

여의도에 새 동지를 틈 한화건설도 올해 호실적을 거둔 가운데 김승연 회장 역시 경영일선에 복귀하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다. 하지만 아직 인사가 나지 않은 건설사들의 인사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는 건설업계 답답이 대거 적발됐고, 해외 사업장 손실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때문에 일부 건설사의 경우 문책성 인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달 중 임원 인사가 예정된 현대건설은 조직개편과 맞물리면서 대대적 인사가 예상된다.

정수현 사장이 개발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는 부셔도 안시킬 처지가 못 된다.

일각에서는 정수현 사장 역시 실적이 그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경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정 사장이 한국전력공사(한전) 부지 단장을 맡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공사를 주도하게 된 만큼 유망할 가능성이 높다.

대우건설도 내주 임원 인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큰 폭의 조직을 개편한 탓에 올해는 큰 폭의 인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가 연말로 예정돼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대림산업의 경우 지난해 호실적을 거두며 칼바람을 피해 갔지만 올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며 조직에 긴장감이 풀고 있다. 대규모 조직개편이나 문책성 인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12/8 (월)	접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에스티움(신길7구역) 3순위	02)848-2600
			안양시	석수동	안양석수엔코타운 (~12/10)	1661-2008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호반베르디움	1688-6442
12/9 (화)	계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세곡2지구6단지(국민인대) (~12/12)	1600-3456
			강남구	세곡동	세곡2지구8단지(국민인대) (~12/12)	1600-3456
			서초구	내곡동	내곡지구2단지(국민인대) (~12/12)	1600-3456
			서초구	내곡동	내곡지구6단지(국민인대) (~12/12)	1600-3456
			광주시	오포읍	e편한세상오포3차 (~12/11)	031)762-0770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호평역KCC스위트 (~12/11)	031)595-7667
12/10 (수)	접수	대구	중구	수창동	대구역센트럴하이 1순위	1800-8886
			김포시	양촌읍	한강신도시3차푸르지오2회(Aa-03)	1577-8942
			수원시	하동	힐스테이트광교(D3)	1670-1221
12/11 (목)	발표	경기	용인시	마북동	용인구성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	1544-9914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자이(2BL) (~12/12)	1800-8577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자이(3BL) (~12/12)	1800-8577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자이(4BL) (~12/12)	1800-8577
			김포시	장기동	e편한세상캐슬시티 (~12/12)	1899-9549
			수원시	호매실동	수원롯데캐슬A8(국민인대) (~12/12)	1600-1004
12/12 (금)	접수	대구	중구	수창동	대구역센트럴하이 3순위	1800-8886
			영등포구	당산동4가	당산역롯데캐슬프레스티지	1899-4222
			김포시	양촌읍	한강신도시3차푸르지오2회(Aa-03)	1577-8942
12/12 (금)	계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IPARK(민간인대) (~12/13)	02)2672-3000
			경기도	창곡동	위례오벨리스크	02)403-6060
			강남구	논현동	아크로힐스논현(장기전세)	1600-3456
12/12 (금)	발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세곡2지구6단지(장기전세)	1600-3456
			강남구	세곡동	세곡2지구8단지(장기전세)	1600-3456
			서초구	서초동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장기전세)	1600-3456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에스티움(신길7구역)	02)848-2600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역오로하늘채(장기전세)	1600-3456
			시흥시	산현동	시흥롯데캐슬힐스테이트	1899-7343

※(주1) ◆: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자료: 부동산114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5개 사업장 1578 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1만6000여 가구 공급에 비해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12월 분양 예정물량이 2만여 가구 남아 있지만 겨울 기습한파와 건설사가 2014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영향으로 내주 청약시장은 쉬어가는 분위기다.

이번 주는 '대구역센트럴하이' 1005가구를 눈여겨볼 만하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공기업 미래역량 확보 LH,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사진 오른쪽)는 지난 5일 세계미래포럼, 한국미래전략학회에서 주관한 공기업 대상 미래준비역량 실태조사에서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공기업 미래준비역량 실태조사는 LH 등 30개 공기업 미래준비역량에 대한 실태조사로 생존경쟁, 성장전략, 위기관리, 동반성장 등 4개 영역의 25개 지표를 평가했다. LH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등 민간 상생형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한 금융부채 5조원 감축, 미래발전기획단 신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울트라건설 빠진 성남시립의료원 공사 '제동'

법정관리로 건립 지연 불가피

삼환기업 등 컨소시엄 7개사

지분 재분배...시행의지 관건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컨소시엄 중 울트라건설이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울트라건설의 공사 지분율이 40%를 넘어 다른 업체들은 현재 이 지분을 재분배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공사는 울트라건설, 삼환기업 등 총 7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맡았다. 이 가운데 울트라건설이 지난달 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의료원 건립 공사를 포기했다. 이 건설사 측은 두 번째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최근 성남시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측에서는 울트라건설과 시공계약을 해지했지만, 의료원 공사는 공



성남시립의료원 조감도.

동 시공사로 참여한 삼환기업 등 나머지 업체들이 울트라 측의 시공 지분을 승계받으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울트라건설의 애초 참여 지분이 전체 절반에 가까운 41%에 달하는 게 문제다. 공동 시공사인 6개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만약 6개 업체가 울트라건설 지분 승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이번 공사는 좌초될 수 있다. 특히 삼환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가 소규모 지분 승계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계약이 해지되면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이로 인해 의료원 건립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중 건립사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성남시와 의료원 건립에 관해 협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 협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인사 이동으로 인해 사업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담당자가 울트라건설이 이번 공사에서 빠진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은 최근 이뤄진 인사이동으로 인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비즈니스호텔 1호 개장한 대림그룹

"국내 3대 운영사 도약" 선언

대림그룹이 비즈니스호텔 사업에 역량을 강화한다.

대림그룹은 지난 6일 비즈니스호텔인 'GLAD(글래드) 호텔여의도'를 개장했다.

그동안 대림은 호텔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앞으로 국내에서 4000객실 이상을 보유한 호텔 개발해 시공 및 운영 그룹사로 성장할 계획도 함께 세웠다. 대림의 모기업은 대림산업인 만큼 그룹 전체가 건설 사업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계열사들의 사업 노하우를 한 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중 하나로 비즈니스호텔 사업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기획, 개발, 시공,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새 사업 모델을 찾았다. 일련의 과정을 통합한 이른바 '디벨로퍼 사업' 분야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림은 이를 통해 신라, 롯데에 이어 국내 3대 호텔 운영사로 도약한다는 당찬 계획을 밝혔다. 대림은 현재 제주도의 그랜드 호텔과 항공우주호텔, 글래드호텔여의도, 강원도의 메이힐스와 더불어 서울 지역(강남, 마포)과 제주도 등에서 운영이 확정된 객실 수만 3000객실에 근접하고 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최악의 불경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법

《경매의 신》, 《월세의 신》 저자의 부동산 투자 완결판

부동산의 신

이성용 지음 | 220쪽 | 13,000원

언제, 어디에, 얼마를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가?
위반건축물, 재개발, 상가·숙박시설·농지·산지·대지투자에 관한 모든 것

한 권으로 끝내는 수익형 부동산

월세의 신

이성용 지음 | 248쪽 | 13,000원

종자돈 500만 원에서 10억까지 리얼 가이드라인!
입을 때만 이해되고 적용 못하는 책 말고, 해결방안은 내 문제로 남는 책 말고,
실전 노하우로 진짜 부자가 되는 책!

이제 막 왕초보 딱지를 뺀 이들을 위한 경매의 신이 가르쳐주는 절대 한 수!

경매의 신

이성용 지음 | 248쪽 | 13,000원

투자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현실성 100% 활용도 200% 경매기술

매번 끝난 잔치에 발걸음을 하고, 소문이 없으면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 목마른 사슴처럼 더 이상 헤매기 싫다면 이 책을 읽어라!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美 고용시장 회복세... '산타렐리' 기대감

미국 경제의 '나홀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의 촉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시장의 호조로 지난 5일(현지시간) 주식시장은 물론 달러가 랠리를 펼쳤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이 같은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는 32만1000건 늘었다. 이는 2012년 1월 이후 최대치다. 월가는 23만5000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인 전월의 5.8%를 이어갔다. 노동부는 일자리 증가에도 구직자들이 늘면서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구직 포기자와 불안전 고용을 포함한 실업률은 10월의 11.5%에서 11.4%로 하락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해 6월 이후 최대폭인 0.4%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 들어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는 월평균 23만9000건 증가한 셈이 됐다. 이는 15년 만에 최대치다.

시장은 고용보고서를 일제히 반겼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지난 주말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는 상승했다. 특히 다우지수는 40여 포인트만 더 오르면 사상 처음으로 1만8000선 고지에

비농업부문 2년만에 최대...뉴욕증시·달러도 최고치 조기 금리인상 전망에 국채금리 급등 채권시장 요동



오르게 된다.

톰 수디카 LKIM 대표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세계 최고이며, 이 같은 사실이 증시를 움직이고 있다"면서 "지급 주식이 최고의 가치는 아닐 수 있지만, 최고의 투자처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돈이 향하는 곳은 바로 증시"라면서 연말까지 주요 지수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고공행진을 펼쳤다.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21.65엔에 거래됐다. 장 중에는 지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인 121.69엔까지 올랐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블룸버그달러스팟인덱스는 지난주 1.4% 상승하며, 7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고용지표 호조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통화정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는 소득 확대로 이어진다면 이는 연준이 내년 중 금리를 인상하는 배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신회사는 "연준은 내년 연말 움직일 것"이라며 "금리인상 행보가 예상보다 더 공격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연준의 긴축으로 집중되면서 실세금리가 급등하는 등 채권 시장이 요동쳤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지난 주말 7bp(1bp=0.01%) 급등한 2.31%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지난주에만 14bp 급등했다.

연준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FOMC 성명에서 '상당 기간(considerable time)'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삭제될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저우융캉 축출' 부패척결 한단락 마무리한 중 '뉴노멀' 인정...경제개혁 속도

"고속서 중고속 전환에 적응" 내년 성장률 목표 7% 전망
신중한 통화정책 추진확인

중국 최고 지도부가 부정부패의 상징으로 꼽혔던 저우융캉을 축출하면서 경제에 더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가 저성장으로 대표되는 '뉴노멀'을 공식화하면서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안정적인 경제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치국 위원들은 내년 중국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칠 여지를 줄 것으로 봤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뉴노멀'을 뜻하는 '신장태(신상태, 新常态)'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여러 차례 '뉴노멀'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5월 허난성 순시 당시 "중국은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며 "경제성장 속도가 고속에서 중고속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경제구조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국 회의는 거시경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하면서 굳건한 통화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장첸 바클레이스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비슷한 정책을 수년 동안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이



반에는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과거처럼 말에만 그치지 않고 저성장을 용인하는 한편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이코노미스트인 루팅과 조사오 등은 6일 보고서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상승률 목표의 7.5%에서 7.0%로 낮출 것"이라며 "정부는 계속해서 통화정책도 느슨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BOA 보고서는 "시진핑 새 지도부가 2년의 부정부패 척결운동 끝에 권력을 강화했다"며 "내년에는 경제성장률과 구조개혁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후진타오 시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당적 박탈과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 저우융캉은 직위를 이용해 약 1000억 위안(약 16조원)의 뇌물 및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늘어가는 유럽... 이민정책으로 회춘할까

오래 불황으로 인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유럽 각국에 오히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 유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은 늘고 있다. 시리아 국민들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서 해상으로 이탈리아를 향하는 난민선이 전복되는 사고도 적잖이 발생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합법화하고 체계적인 수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자 경제 활성화를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와 크레포 유엔 이주민인권 특별 보고관은 이탈리아 난민선이 전복, 17명이 사망했던 사고와 관련, 지난 6일(현지시간) "국경을 지키는 것보다 목숨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면서 "지중해에서 더 많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기적인 이민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노동력이 줄어들고 삶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유럽은 경제적인 해법으로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7일 칼럼을 통해 주장했다.

FT가 입수한 유럽위원회(EC)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60년까지 영국으로의 이민자 수만 900만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영국 내 반(反)이민 정서는 매우 짙다. 지난 5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 영국독립당(UKIP)은 이런 표심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보궐 선거에서 첫 하원의원을 배출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캐머런 총리는 루마니아와 불가

2060년 2명이 노인1명 부양 전망 FT "경제적 해법으로 수용해야"

리아 국민의 이주가 허용된 이후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차등 적용했고,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EU 탈퇴 가능성을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FT는 그러나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을 감안할 때 EU 회원국들은 현재 네 사람의 노동가능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60년이 되면 두 명의 노동가능 인구가 노인 한 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민 정책은 확실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기자 s914@

'결제공룡' 페이팔 영국응권도 위협

응답자 25% "2년내 은행업무 대체"

미국 전자결제시스템 페이팔이 영국 금융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 리서치기업인 유고브(YouGov)와 다국적 로펌 핀센트 메이슨스가 2000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영국 유명 금융회사들이 신산업체나 대형 IT 기업보다 페이팔과 같은 전자결제 시스템에 고객을 빼앗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 결과 25%에 가까운 응답자가 "2년 내에 기존 은행 은행의 서비스 대신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은행업무를 대체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반면 5%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IT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IT기업들이 잇달아 전자결제 시스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존 살몬 핀센트메이슨스 금융서비스 책임자는 "결제와 다른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금융권이 디지털로 전략을 변경해 더 빠른 속도와 신뢰성, 안전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은행들이 이런 흐름에 발맞춰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바클레이스과 영국 프라이빗뱅크 쿠퍼츠는 최근 영상 뱅킹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태풍 '하구핏' 필리핀 강타



7일(현지시간) 태풍 '하구핏(Hagupit)'에 따른 강풍에 필리핀 루손섬의 항구도시인 레가스피 가로수들이 흔들리고 있다. 전날 시속 215km에 달하는 태풍 '하구핏'이 필리핀에 상륙해 주민 100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또 항공기, 선박 등이 운항이 중단됐다. 한편 현지 전력공급이 중단된 통신이 끊겨 아직 인명피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레가스피/EPA연합뉴스

눈빛으로 피자 주문한다

피자헛 개발...태블릿 메뉴판 응시하면 토핑 인식

피자헛이 '눈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피자헛은 태블릿 메뉴판을 보는 고객의 안구움직임을 추적해 주문을 받는 '아이 트래킹(Eye Tracking)' 시스템을 지난 10월 구축해 테스트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세계 첫 잠재의식 메뉴판'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현재 미국 내 300개 피자헛 매장에 도입됐다.

시스템 이용은 간단하다. 태블릿에 디스플레이된 메뉴판에서 고객이 고를 수 있는 토핑의 갯수는 20개, 고객이 원하는 토핑 아이콘을 오래 응시하면 주문에 해당 재료가 반영된다. 만약 다시 선택하고 싶다면 '재시작' 버튼 아이콘을 한 번 쳐다보기



만 하면 된다. 피자헛 관계자는 "메뉴 결정을 잘 못하는 고객이나, 메뉴판을 오래 보는 고객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스템은 스웨덴의 안구인식 기술 전문업체 토비테크놀러지가 개발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글로벌 리포트

인도 '우버' 기사, 성폭행 저질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는 '우버' 기사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에서 20대 여성이 우버택시를 탔다가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현지 언론 NDTV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범인은 지난 5일 밤 뉴델리 외곽 구르가온에서 우버택시에 탑승한 27세 여성을 살해했다고 혐박해 성폭행한 뒤 이 여성의 집 근처에 내려놓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이날 범인을 체포했다.

사건 발생 후 우버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자켓 있는 운전자와 제휴하고 있으며 운전자와 차량 정보 등록, 이동 경로 추적 등 여러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도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회사의 해명과 달리 우버 앱에 등록된 기사의 사진과 실제 운전자가 달랐고 그가 휴대전화 화면을 꺼 놓아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추적도 되지 않았으며 우버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중 "2020년 화성에 탐사선 발사"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화성에 탐사차량을 보내고 2022년께 유인 우주정거장 건설을 끝내는 등 웅대한 우주개발 계획을 밝혔다고 7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주 계약업체인 국영 중국항공과기집단의 레이판페이 회장은 이날 중국과 브라질이 공동 개발

한 인공위성 CBERS-4가 발사된 산시성 타이위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첫 화성 탐사선 인공위성 1호를 러시아 로켓에 실어 발사했으나 로켓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해 실패로 끝났다. 이에 중국은 현재 자체 개발 중인 장거리 로켓 창정 5호를 통해 화성 탐사선을 보낸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 1호를 대체할 텐궁 2호와 유인 우주선 선저우 11호, 우주화물선 텐저우 1호가 2016년 발사될 예정이며 2018년께 핵심 우주정거장 실험 모듈을 쏘아올린다. 2022년에는 핵심 모듈과 두 개의 실험실이 연결된 중국 첫 우주정거장이 완성될 것이라고 레이 회장은 설명했다.

北 "소니 해킹은 의로운 소행"

북한이 소니 영화사 해킹을 부인하며 이번 해킹은 북한을 지지하는 누군가의 '의로운 소행'이라고 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소니 해킹공격은 우리의 반미 공조 호소를 받들고 펼쳐나간 지지자·동지들의 의로운 소행이 분명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대변인은 "소니가 '최고 존엄(김정은)'의 암살 시도를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소니가 미국 어디에 있는지, 무슨 뜻인 짓을 저질러 본면을 당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아남한이 미국에 동조해 이번 해킹 사건을 근거 없이 북한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한국이 미국에 무턱대고 아부하다가는 무서운 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자골프 한일전 3연패

25-11로 압승... 19살 막내 김효주 MVP

기록은 속일 수 없었다. 한국 여자프로골프 드림팀이 일본에 한 수위 기량을 뽐냈다. 한국 여자프로골프 대표팀은 7일 일본 아이치현의 미요시 골프장(파72·6495야드)에서 열린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총상금 6150만 엔·5억7000만원) 최종 2라운드(12개조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승점 16점을 챙겨 8점을 더하는데 그친 일본을 가볍게 따돌리고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전날 2인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승점 9점(4승1무1패)으로 일본(승점 3점)에 6점 앞선 상황에서 2라운드에 돌입한 한국 대표팀은 승점 16점을 추가해 1:2 라운드 합계 25-11로 일본의 추격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첫 승전보는 김효주(19·롯데)가 안겼다. 1초 첫 주자로 나선 김효주는 1언더파 71타를 쳐 일본의 최고잡 오야마 시호(36·이븐파·2타)를 1타차로 따돌리고 승점 2점을 추가했다. 17번홀(파4)까지 한 타 뒤져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지만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오야마 시호는 보기로 무너진 반면 김효주는 버디로 한 타를 줄여 극적 역전극을 연출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이정민(22·비씨카드)은 모리타 리카코(23)와 나란히 1오버파 73타로 무승부를 기록, 각각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다. 이어진 3조에서도 이민영(22)과 와타나베 아야카(21)가 5오버파와 77타로 동타를 이뤄 다시 한 번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씩을 가져갔다.

그러나 이어진 라운드에서는 한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3언더파 69타)은 류 리츠코(27·1오버파 73타)를 4타차로 따돌렸고, 최운정(24·볼빅·이븐파 72타)은 6오버파로 무너진 사카이 미키(23)를 압도했다. 올해 KLPGA투어 신인왕 백규정(19·CJ오쇼핑)은 1오버파로 흔들렸지만 7오버파로 부진한 스키 아이(20)를 제압하며 각각 승점 2점씩을 더해 우승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남은 6경기에서 이보미(26·코카콜라제관), 신지에(26),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이 요시다 유미코, 우에다 모모코, 나리타 미스즈를 각각 꺾었고, 전인지(20·하이트진로), 최나연(27·SK텔레콤), 박인비(26·KB금융그룹)는 오오에 가오리, 아나이 라라, 하라 에리나에게 패했지만 승점 6점씩을 주고받으며 우위를 지켰다.

이날 MVP로 선정된 김효주는 "첫 한-일전이었는데 만족스럽다.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막내로서 1번 타자로 나가 잘 끝낸 것도 스스로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성민 기자 golf5@



2014 자유계약(FA) 시장 구단별 몸값 비교

구단	FA총액(억)	선수	기간	금액(억)	원소속팀
삼성	173억	윤성환*	4년	80억	삼성
		안지민*	4년	65억	삼성
		조동찬	4년	28억	삼성
SK	164억	최정*	4년	88억	SK
		김강민*	4년	56억	SK
		조동환	4년	22억	SK
한화	96억	송은범	4년	34억	KIA
		권재	4년	32억	삼성
		배영수	4년	21억5000만	삼성
두산	84억	장원준*	4년	84억	롯데
		박용택*	4년	50억	LG
		박경수	4년	18억2000만	LG
LG	44억1000만	김시율	4년	14억5000만	롯데
		박기혁	4년	11억4000만	롯데
		나주환			SK
미계약	0	이재영			SK
		이성열			넥센
		차일목			KIA

역시 삼성! 3명 잡는데 173억 '최대'

올 FA 15명에 611억... 4명 남아

2014년 프로야구 자유계약(FA)선수 시장에 611억1000만원이 쏟아졌다. 총 19명의 FA 선수가 탄생한 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는 어느 해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1차 원소속팀과의 협상(8명 계약)에 이어, 3일 원소속팀을 제외한 팀과의 협상에서 7명이 이적, 총 15명의 동지가 결정됐다. 이제 남은 선수는 4명으로 이재영, 나주환(이상 SK), 차일목(KIA), 이성열(넥센)이다.

이번 FA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첫 100억원 돌파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100억원을 넘지 못했다. 80억원을 넘는 선수만 3명이다. 가장 높은 몸값을 기록한 선수는 최정(27·SK)이다. 최정은 원소속팀 SK 와이번스와 4년 88억원에 계약해 강민호(4년 75억원)의 역대 최고액 기록을 갈아치웠다.

롯데 자이언츠의 88억원(4년)을 뿌리친 장원준(29)은 84억원(4년)에 두산 베어스 모자를 썼고, 윤성환(33)은 80억원(4년)을 받고 삼성 라이온즈 잔류를 결정했다. 안지민(31)은 65억원(4년)에 삼성과 계약하며 불펜 투수의 자존심을 세웠다. 그 밖에 김강민(33)은 원소속팀 SK 와이번스와 56억원(4년), 박용택(35)은 50

점과 롯데의 88억원을 거부한 장원준 그리고 삼성에서 한화로 이적한 배영수였다.

당초 FA 시장 최대어 중 한 명으로 손꼽혔던 최정은 팀 잔류를 택하며 내년 시즌을 준비했다. SK 입장에서 팀의 간판 타자 최정을 다른 팀에 빼앗길 수는 없었다. 100억원 돌파설까지 나돌던 터라 어느 정도 억제된 금액이었다.

그러나 장원준의 두산행은 미스터리다. 롯데가 제시액 88억원보다 적은 84억원에 두산 입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실제 계약 총액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졌다. 세금을 포함한 실제 총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0억 책정' 주인공은

최정 4년 86억... 역대 최고액 갈아치워
장원준, 롯데 '88억' 뿌리치고 두산으로
윤성환은 80억 받고 삼성에 잔류 결정

구단들 얼마나 썼나

SK도 3명 재계약 164억 '두번째 큰손'
한화, 투수 3명 영입 86억 '알짜 쇼팽'
KT, 3명 보강에 44억 '대어보다 안정'

억원(4년)에 LG 트윈스와 재계약했다.

4명의 선수에게 96억원을 투자한 한화는 외야수 김경연(32)을 8억5000만원(3년)에 잔류시켰고, 외부에서 권혁(4년 32억원)과 우완 선발 배영수(3년 21억5000만원), 송은범(4년 34억원)을 영입, 가장 눈에 띄는 선수 보강이 이루어졌다. 한화는 우여곡절 끝에 영입한 김성근 감독의 연지가 적지 않은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화는 외부에서 영입한 3명의 베테랑 투수 활용 여부가 내년 시즌 관건으로 떠올랐다.

내년 시즌 제10구단으로서 1군에 합류하는 KT 위즈는 대어보다 안정을 택했다. 우완 불펜 김시율(34)과 14억5000만원에 계약했고, 내야수 박기혁(33·4년 11억 4000만원)과 박경수(30·4년 18억2000만원)와도 서둘러 계약에 마무리했다. 3명을 보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44억1000만원이다.

이번 FA 시장의 최대 화제는 최대 몸값을 기록한 최

삼성과 결별 후 한화로 이적한 배영수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배영수는 대구 경북고를 졸업하고 2000년 삼성에 입단해 15년간 삼성에서만 뛰었다. 푸른 피의 에이스라는 애칭을 얻을 만큼 삼성의 살아있는 신화였다.

특별로 보면 삼성은 3명의 선수와 재계약하는 데 173억원을 쏟아 부어 가장 많은 지출을 했고, SK는 3명의 선수를 잔류시키는 데 164억원을 썼다. 반면 한화는 4명의 선수에게 96억원을 사용해 비교적 성공적 FA 시장을 마감했다. 그런가 하면 두산은 장원준 한 명을 영입하는 데만 84억원을 투자했고, LG는 박용택 잔류를 위해 50억원, KT는 3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 44억1000만원을 사용해 지출이 가장 적었다.

한편 아직까지 미계약 선수로 남아 있는 4명의 선수는 내년 1월 15일까지 원소속팀 포함, 전 구단과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연봉킹' 최정, 86억 중 20억 이상 세금으로

야구선수, 소속팀 있지만 사업자로 분류
年 소득 1.5억 이상이면 최대 38% 세금

연봉 대박을 터뜨린 자유계약선수(FA)들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낼까.

프로야구선수는 소속팀이 있지만 사업자로 분류된다.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다. 선수들의 수입은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급여(연봉)는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할 때 세법에 따라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가 원천 징수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10억원이라면 매월 1억원씩 10개월 동안 받게 된다(프로야구 선수 연봉은 활동 기간인 2-11월에 나눠 지급된다). 여기서 원천징수 세액 330만원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하면 월 실질 수령액은 9000만원이다. 하지만 다음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다시 매겨진다. 소득세율은 연봉 구간별로 나뉘는데 최저 6%에서 최고 38%의 세금을 내게 된다. 1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최대인 38%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경비를 뺀 금액에 대한 세율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연봉으로 받았지만 각종 경비가 6억원이 넘는다면 4억원에 대한 세율 38%를 적용한다. 선수들은 최소한 연봉의 35.7%(기준경비율) 이상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FA 계약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타소득이었



으나 2004년 정부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업소득이 지속적 용역 제공으로 얻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은 일회성 용역 제공으로 받는 수당을 뜻한다.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FA 계약금에 대한 세 부담이 4.4%에서 36%로 늘었다.

역대 FA 최고액을 기록한 SK 최정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될까. 최정은 SK와 4년 86억원(계약금 42억원+연봉 11억원)에 계약했다. 계약금은 계약기간에 따라 고르게 나누어 해당연도 연봉과 합산돼 수입금액으로 잡힌다. 이럴 경우 최정은 매년 21억5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고, 기준경비율을 경비로 인정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액 86억원 중 2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최성근 기자 sgchoi@



F/W시즌 특별 할인

데니스 전품목 70~50% SALE

기간 : 2014.12.01~12.31 (1개월 간)

(주)데니스 02-3481-2250 www.denniskorea.co.kr

“의료법 알아야 병원 리스크 줄인다”

한국 병원경영 콘퍼런스 2014

신철호 닥프렌즈 대표, 의료법 위반 사례 소개 호응 조우성 변호사 “가장 큰 위험은 영업정지” 예방 강조

의료IT 서비스업체 닥프렌즈가 주최하고,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후원한 ‘한국 병원경영 콘퍼런스 2014’가 7일 300여명의 병·의원 관련 업계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SETEC 무역전시관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병원이란 말이야 할 거의 모든 법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의료법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만이 병원경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오전 세션은 치과 의사 출신인 김영환 세정치만주연합 의원이 ‘융합의 시대, 의료인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김영환 의원은 “의사들이 고정관념과 경계를 파괴하고, 첨단의료와 다양한 분야들을 융합시켜야 한다”며 자신의 의료경영 융합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김 의원은 서울 북촌한옥마을 입구에 전통한옥과 치과를 결합하거나, 나이트클럽을 고쳐 만든 참고형 치과병원 등 다양한 융합을 시도했다.

김 의원에 이어 연자로 나선 임강섭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의료법 준수 우선순위 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임 사무관은 “의료서비스 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는 병원경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적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신철호 닥프렌즈 대표는 “병원이란 말이야 할 의료법”이라는 주제로 병·의원들이 의료법을 위반

하고 있는 대표 사례 30가지를 소개,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신철호 대표는 “병·의원 관계자들의 의료법 준수에 관한 인식과 그 내용에 대한 인지가



신철호 닥프렌즈 대표가 7일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시장(SETEC)에서 열린 '한국 병원경영 콘퍼런스 2014'를 맞아 '병원이란 말이야 할 의료법'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jjjak@

고 있는 대표 사례 30가지를 소개,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신철호 대표는 “병·의원 관계자들의 의료법 준수에 관한 인식과 그 내용에 대한 인지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법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병원경영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후 세션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경영실장인 이윤근 박사의 ‘의료패러다임 변화와 병·의원 마케팅: 격전지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시작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윤정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이 ‘중소의료기관의 정보보호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으로 조우성 변호사는 병원경영에서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례 연구를 공유했다. 조 변호사는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에 맞닥뜨릴 수 있다”면서 “이 중 가장 큰 리스크는 영업정지와 같은 병원 경영을 멈추게 하는 위험”이라며 병원을 운영 하는 원장이나 스태프들이 의료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교수는 의료계의 개인정보보호법 준비 실태를 진단하며 “의료계와 IT업계가 같이 손을 잡고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에드 로이스 美 하원 외교위원장 “독도, 올바른 명칭은 독도”

“日 위안부 부정 변명 여지 없어”



미국 정부는 현재 지명위원회(BGN) 결정에 따라 독도를 중립적인 명칭인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은 독도와 다케시마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의 에드 로이스(사진) 외교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독도 표기와 관련해 단호한 어조로 한국 정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또 일본에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그는 이날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바른 명칭은 독도”라며 “일본의 한반도 침략 등 역사적 관점에서 독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입장을 대놓고 지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는 단순한 표기 차원을 넘어 독도 영유권이 역사적으로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깊다.

대표적 친한파 인사인 로이스 위원장은 공화당 소속으로 12선의 중진 의원이며 내년 1월 시작되는 114대 회기에서도 하원 위원장을 계속 맡을 예정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BGN이 일본의 로비에 미국 지도 상의 독도 명칭을 바꿨다는 사실이 2008년 드러났을 때 한·일 강제병합과 독도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위안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안부들이 강제 동원돼 성노예로서 삶을 살았다는 역사적 기록은 매우 분명하다”며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안부를 부정하는 것은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를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공포스럽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카이스트 연구진, 줄기세포 성장 조절 '린28A' 규명

생명과학 이대엽·한용만 교수팀



줄기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고 암세포 성장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린28A(LIN28A)'의 작용 메커니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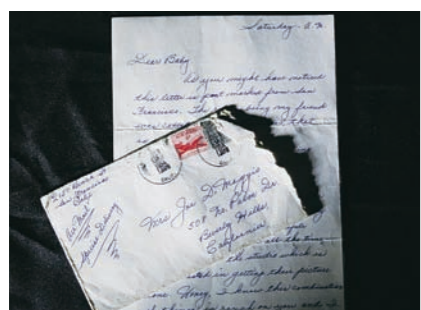
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생명과학과 이대엽(사진 왼쪽)·한용만(오른쪽) 교수팀은 줄기세포의 핵 안에 있는 린28A에 메틸기(-CH3)가 첨가되면 줄기세포의 성장을 방해하는 '렛-7 마이크로 RNA(let-7 miRNA)'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줄기세포의 성장을 돕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린28A에 '모노 메틸화 효소(SET7/9)'의 작용으로 메틸기가 달라붙으면서 '렛-7 마이크로 RNA'의 생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렛-7 마이크로 RNA가 많이 생성되면 줄기세포나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배아줄기세포에서 린28A가 렛-7 마이크로 RNA 생성과정을 조절하는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을 밝힌 것”이라며 “배아줄기세포뿐 아니라 유도만능줄기세포(iPSC)와 암과 난치병 치료 등 임상단계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디마지오 러브레터 8700만원에 팔렸다

전 부인 메릴린 먼로에게 보내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전설' 조디마지오(사진)가 전 부인 메릴린 먼로에게 보낸 편지가 7만 8185달러(약 8700만원)에 팔렸다.



6일(현지시간) 줄리안옥션은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낙찰자에게 디마지오가 이혼 발표 후 먼로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가 팔렸다고 밝혔다.

디마지오는 1914년 11월 25일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 미나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다. 메이저리그 통산 3할2분5리의 타율과 361개의 홈런, 56개의 연속 안타 행진 등의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아메리칸 리그에서 3번이나 MVP에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디마지오는 1954년 먼로와 결혼해 스포츠 스타와 최고인기 여배우의 사랑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결혼 수개월 만에 먼로가 이혼 준비 사실을 발표하자 고뇌로 가득찬 편지를 보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복지시설 나온 자립청소년에 가족을... '소셜팸' 출범

부모·조부모·형제 등 3세대로 구성 사회적응에 도움 '진짜 가족' 역할



임철수 한국인구연구원 이사장, 송영신 상임대표, 안철수 국회의원, 1인가구 자립청소년 등이 소셜팸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셜팸은 부모세대, 조부모세대, 형제 자매세대 등 4인 이상 3세대로 구성돼 이들은 자립청소년의 문제에 공감하고 상호 도움을 주는 진짜 가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구연구원 상임대표 송영신 변호사는 “현행법상 만 1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생활하던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연 평균 800여명의 청소년들이 100만~500만원의 자립적립금을 받고 사회로 나오지만, 집 문제부터 직장을 구하는 것까지 일순간에 성인의 위치에 놓이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1인가구 자립청소년을 돕고자 지난 5일 사회적가족 '소셜팸'이 탄생했다.

서울 마포구 'K-Turtle'에서 있는 소셜팸 출범식은 1인가구 자립청소년에게 가족 인연을 맺어주는 신개념 사업이다.

이번에 1인가구 청소년에 소셜팸을 만들어주며 돕기에 나선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

1인가구 자립청소년들은 대체로 사회경험이 전무함에도 집 문제부터 직장을 구하는 것까지 일순간에 성인의 위치에 놓이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철수 한국인구연구원 이사장, 상임대표 송영신 변호사, 실제 자립청소년 등이 나와 소셜팸 운동의 의미와 소셜팸 구성과정, 방향성 등을 설명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배해동 토니모리 회장 '개성공단' 특강

고려대 북한학과 학생 대상

의 현황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 전망 등 심도 깊은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태성산업을 운영하며 실제로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풀어내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다. 강연이 끝난 후 진행된 질의 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 강연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배 회장은 토니모리 설립 이전 용기 전 문제 제기를 토니모리 설립 이후 운영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했음은 물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역임, 입주 기업의



토니모리의 배해동(가운데) 회장이 지난 5일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CEO 특강을 진행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토니모리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토니모리의 배해동 회장이 지난 5일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CEO 특강을 했다.

‘개성공단 10년, 남북경협 현황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용기 전문 제조업체인 태성산업의 회장이자 개성공단 협의회 회장까지 역임한 배 회장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안정적 경영활동지원 등 남북 경협 발전에 힘썼다. 이신애 기자 Lsa@

인사

- ◆해양수산부 ○전출 △대통령비서실 부이사관 강용석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IST 유럽연구소장 최귀원 책임연구원 △의공학연구소장 직무대행 권익찬 책임연구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임원 △전무이사(경영전략본부장) 홍지일 △광고진흥본부장 이만주 △미디어사업본부장 신성용 △영업본부장 민원식 ○국장급 △감사실장 이성호 △기획조정실장 김중량 △경영관리국장 배창근 △경영혁신팀장 고재영 △광고사업진흥국장 성낙중 △공익사업국장 이정혜 △광고인프라팀장 오지현 △미디어정책국장 지승

- △영양2국 영양3팀장 임정호 △판매기획팀장 박찬웅 △대구지사장 박종인 △광주지사장 장원 △대전지사장 박병환 △경남지사장 이형진 △울산지사장 박택은
-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리스크관리2부장 양이중 △기금관리부장 한호섭 △채권관리실장 권이용 △감사실장 정대영 △리스크관리기획실장 심재만 △인사제도TF팀장 정찬형 △인프라강화 TF팀장 박동섭 △특별재난조사TF팀장 이재경 ○신규 보임 △외부과연(파산재단 등) 박병기 신형구 장민 최진무
- ◆신용보증기금 ○임원 승진 △한중판권 전무이사 △판정장 삼임이사
- ◆기술투자자산운용 ○승진 △상무 주

- 식운용본부 부부장 장병영 △상무 채권운용본부 부부장 김기현 △상무부 단기상품 운용팀 팀장 문병석 ○신규채용 △이사 상 품개발팀 팀장 홍성수
- ◆영남일보 △뉴비즈본부장 겸 한국스토틀링연구원장 최중철 △편집부국장 겸 사회부면 에디터 김기억 △편집부국장 겸 정치·경제부면 에디터 박재일 △북부지역본부장 박윤규 △논설위원 배재서 △사회부장 윤철희 △사회부장 허석운 △경제부장 전영 △정치부장 임성수 △체육부장 조진범 △기획취재부장 이은경 △주말색선부장 김기오 △편집부장 변중현 △편집위원 윤재호 △교육팀장 이창호
- ◆대구신문 ○승진 △부사장 김상균

부음

- ▲임우식(미주강화 부장)·의맥(메트로신문 부장)씨 부친상 = 7일 저녁 10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 발인 9일 오전 8시, 02-2227-7500
- ▲김기덕(KDB대우증권 감사실 차장)씨 모친상 = 7일,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11호실, 발인 9일 오전 10시, 02-2650-2760
- ▲강경수(전 삼성화재해상보험 대표)씨 별세, 호철(SK이노베이션 부장)·호원(LIG손해보험)씨 부친상, 김장호(삼성SDS 차장)씨 장인상, 한승이(오마이컴퍼니 이사)씨 시부상 = 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6시 30분, 02-3410-6917
- ▲배재구(삼성자산운용 전무)씨 장인상 = 6일, 이대 목동병원 지하 1층 3호, 발인 9일, 02-2650-2743
- ▲정정환(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선수)씨 부친상 = 7일, 경기도 군포시 지샘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031-389-3770
- ▲장윤일(한국전파진흥협회 교육원장)·윤상(제이비엔 대표이사)·윤희씨 부친상, 윤재수(대한공조이엔지 대표이사)씨 장인상 = 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 발인 9일, 02-3410-6919

- ▲최영태(전남대학교 교무처장·사학과 교수)씨 모친상 = 7일, 광주 강화동 그린장례식장, 9일 오전 11시, 062-530-3240(전남대 사학과)
- ▲박정훈(서울신문 울산주재 기자)·정원(농소초등학교)씨 모친상 = 7일 낮 12시, 울산영락원 202호, 발인 9일 오전, 052-272-1111, 010-2840-5234
- ▲장준식(전 한국경제신문 이사)씨 부인상, 정우순(전 극동건설 부장)·유순(대명엔터프라이즈 부장)·문순(전 국민카드 차장)씨 부친상, 이유희(전 교보증권 지점장)씨 장모상 = 7일, 서울 을지로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 02-970-8444
- ▲박근철(㈜SKM 전무)·근식(세무사)·근찬(한국야구위원회 홍보팀장)씨 모친상 = 7일 오전 0시 7분, 경남 진주 경성대학교 교병원 장례식장 특102호, 발인 9일 오전 7시, 055-750-8448
- ▲허성권(KBS 울산방송국 기자)·성길(회사원)씨 모친상 = 7일 오전 2시, 진주시 초전동 진주전문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9일 낮 12시, 055-759-4193
- ▲유혁훈(충북 천진군 홍보팀장)씨 부친상 = 7일 오전 5시, 진천장례식장 102호,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043-532-4405

신뢰가 소통을 이끈다

“어른이어서 미안하다.” 지난 5월 경기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주자장에서 자살한 50대 남성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의 내용이다. 믿을 수 없는 참사였고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그런데 왜 그는 ‘어른이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세대 간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세대 간 소통의 선진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단절된 소통을 회복시킬 방안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박호종 서울대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선장 역을 맡고 있는 지도층은 보신주의와 기회주의로 연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기성세대의 공동체 내부에서 크든 작든 ‘세월호’를 기르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젊은 발언대



최정은
울산대 국제관계학과
한국선진화포럼 13기

세월호 참사를 통해 현재 지도층 혹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월호 대참사는 단순히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사고가 아니다. 대한민국 기성세대의 바닥을 드러낸 국가적 위기의 대참사였다. 결국 그간 간과했던 적당주의, 부정부패, 책임의식의 결여가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됐다.

한국사회 세대간 소통 단절 개인주의보단 신뢰의 문제 어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기성세대 책임의식 강화해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을 많은 학생들이 믿었던 것은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믿은 것이다. 생사를 오가는 급박한 순간에 어른의 말 한 마디가 아이들에겐 안도감과 희망의 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의 책임을 믿고, 어른들의 말을 믿은 아이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세대 간 불신이 자리한 지 오래이지만 그래도 어른이라 불리는 그들을 믿었던 것. 하지만 어른이 못 믿을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사회의 세대 간 소통 단절은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과 개인주의의 팽배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도 신뢰는 기본이다. 세대 간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기성세대의 책임의식 강화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관료와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동과 그들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불신을 고조시킨 요인이다. 관료나 정치인, 공무원의 범죄에 있어서 더욱 막중한 책임을 묻는 법률이 필요하다. 더욱 엄격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 윤리기준이 강화될 것은 물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맞아야 했다.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세대 간 신뢰가 바탕이 돼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많아진다면 소통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핵심 정책으로 벤처 창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4년을 보내는 시점에 창업 활성화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내년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2001년 벤처 규제 정책인 4대 벤처 건전화 정책으로 야기된 ‘10년 벤처 빙하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벤처는 130개 세계 일류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63개 기업을 배출하고, 삼성전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300조원 넘는 매출을 거뒀다. 만약 10년 벤처 빙하기가 없었다면 지금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벤처 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을 것이다. 제2의 벤처 붐을 위한 창업 활성화 정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다.

지난 2년 동안 기재부, 미래부, 중기청 등이 많은 창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해 왔다.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에 창업 활성화 정책 역시 문제점이 있었으나 분명한 것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초기 육성을 담당하는 엑셀러레이터들의 의견을 들어

창조경제 2년, 창업 열기 어디까지 왔나

왔다. 그 반응은 적게는 10배, 많게는 30배의 열기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서울 강남의 선릉 일대를 중심으로 열기가 증폭되고 있다. 창업의 중심부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으로 초기 투자를 담당하는 엔젤 투자자와 초기 투자 벤처캐피탈의 의견을 확인해 봤다. 일부 인기 투자사에는 2년 전에 비해 10배의 사업계획서가 몰려오고 있다고 한다. 보수적 투자구조조차 적어도 3배의 증가는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창업 경진대회는 2년 전에 비해 질적 향상이 꺾을 만할 수준이라는 것이 심사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실 2년 전 많은 창업 경진 대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때는 10년 빙하기를 거친 창업의 질적 수준이 형편없었고, 상당수는 미국의 복제품에 불과한 카피캣(copycat)들이었다. 심지어 카피캣을 가려내지 못하는 심사위원들의 수준도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양적 임계질량을 돌파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서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초기의 양적 확대 정책은 나름대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었다.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질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는 세계적 수준의 창업들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을 전제로 하는 프리-코스닥(Pre-Kosdaq) 투자를 담당하는 벤처캐피탈들의 의견은 반대로 나타났다. 아직 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0

년 초 1차 벤처 붐이 일어날 당시 연간 200개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가 배출된 규모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30개 수준의 코스닥 상장은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코스닥 상장 정책이 벤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코스닥 정책에 대한 믿음은 벤처캐피탈 심사역들에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체로 예비 창업에서 초기 투자 단계까지는 창업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봐도 좋다. 그러나 창업 5년 이후 벤처 생태계는 아직 온기도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잠재적 창업기인 학생들에 대한 기업 가정인 교육은 걸음마 단계다.

그렇다면 이제 정책적 무게중심은 코스닥과 M&A를 통한 회수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 뒤에서 밀려가는 공급 중심의 창업 정책은 나름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회수 시장이 당겨주지 않으면 한계 효용은 줄어들 것이다. 당장 급한 것은 코스닥 활성화다. 올해 목표인 70개 기업 상장을 넘어 내년에는 100개, 내후년에는 150개에 도달할 때 비로소 창업 생태계는 200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여기에 중간 회수 시장으로 M&A시장을 한국적 방식으로 육성해야 한다. 1차 벤처 붐도 벤처기업특별법 등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실리코밸리를 벤처 마킹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답습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M&A 회수 시장 정책이 2차 벤처 붐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온라인 와글와글 해외여행 경비 사상최고치, 그들은 판 세상에 사는 게야

○...장기 불황에도 올해 해외로 떠난 관광객 숫자는 전년 대비 7.0% 증가. 1인당 평균 해외지출 경비는 1235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다. 네티즌은 “돈 벌어서 자기가 갖는 건 상관할 바가 아니지. 문제는 돈 없고 빚 있으면서 해외 다니는 사치를 한다는 거지”, “불황이라고 다 아길 필요 있나? 몇 백 받는 월급 아간다고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써도 크게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을 하는 게 낫지”, “나도 월급쟁이지만 해외여행 자주 다니다. 기업들 불황인 거랑 일반 월급쟁이랑 무슨 상관이야? 해외여행 자주 간다고 고소득층이니 부자니 하는 헛소리 이제 그만”, “국내에서 돈 쓰면 호구 고객이니가 외국 나가서 써야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로 건강보험 15억원을 부담하게 타낸 인천의 한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온라인상에선 “활개치는 도둑놈들, 활개치도록 허가 낸 도둑놈들, 세상이 온통 도둑놈 천지구나”, “요양병원 좀 없애버렸으면, 복지 늘린다고 허겁지겁 제도 마련하고, 보험료 신실해서 뜯어가더니, 결국 이런 지경이지. 요양병원 입원 절차를 강화해 이런 사기 급어를 없애기 바란다”, “긴보료 아무리 올려도 적자다. 관리는 개관으로 하면서 세수 부족하다고 매일 울리니. 참 씩씩 대로 씩었다”, “12년 전 요양병원에서 일할 때부터 있던 일. 나라에서 돈만 받아먹고 치료도, 먹이는 것도 엉망진창. 보육비 지원도 의료비 지원도 왜 개인에게 안 주고 병원이냐 어린이집에 다 주냐”, “이런 데 쓰려고 담뱃세 인상하고 공공요금 올린 거냐. 한심하다” 등 비난 의견이 많았다.

○...건강보험료는 눈먼 돈? 노숙인 300여명 명의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 1 태풍 하구핏 필리핀 강타... “인명 피해 파악 안돼”
- 2 전국 대부분 눈...울산·거창 등고시간 10시로 늦춰
- 3 ‘오우커 VIP’ 87%, 한번 방문에 5천만원 이상 쇼핑
- 4 삼성ENG, 합병 무산뒤 불확실성 남아
- 5 ‘공무원 임금피크제 연동 정년 65세’ 검토

오늘의 **이투데이** www.baekn.com

에네스 카야, 해명이 필요한 이유



배극남담김은 8일 다양한 기자 칼럼을 통해 대중문화계와 스포츠계에 비판을 가했다.

‘이웃들의 36.5℃’는 ‘에네스 카야 해명, 왜 필요하냐?’를 강조했다. 대중 앞에 선 사람이 놀린 세 치 혀와 그 이면과 실상이 다른 점이 불러일으킨 배신감이야말로 당사자의 적극적 해명으로도 되갚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예린의 어퍼컷’은 “초심 않은 ‘개그콘서트’, 동혁이 형이 그림자”를 주장했다. KBS

2TV ‘개그콘서트’에는 부모가 외모로 자식을 차별하는가 하면, 풍성한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코너가 즐비하다. 과감한 도전과 다양한 형식 대신 원작의 유명성에 기댄 독창성 없는 패러디나 진부한 소재, 형식의 쉽고 편안한 웃음만을 얻으려 하는 ‘개그콘서트’는 초심을 잃었다. ‘김민정의 시스루’는 ‘아시아 최대 음악축제 2014 MAMA, 누구를 위한 시상식인가’를 게재했다. ‘MAMA’는 총 3493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열리는 다수의 음악시상식의 특별한 차별점을 딱히 찾을 수 없는 점이 아쉽다는 비판이다. ‘최두선의 나비효과’는 “무한도전 ‘미생’, 이 죽일 놈의 극한 세상”을 언급했다. 짜인 각본, 픽션 아래 웃음과 감동을 책임졌던 예능과 드라마가 이제 ‘현실을 다루며 시청자의 공감을 자아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성근의 인사이드’는 ‘잔류 결정 양현종, 앞으로가 더 중요한 이유’를 피력했다. 기아 양현종이 결국 해외 진출의 꿈을 접고 국내에 남기로 했다. 기아는 양현종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양현종도 미래 비리그 제도전을 위해 마음을 다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꽃들 기자 flowerslee@



HERNO

이탈리아 프리미엄 패딩, 에르노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무역센터점 / 02 3449 5965 · 02 3467 8377

正論

재테크가 필요없는 사회

국내에서 재테크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삶의 기반을 이루는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났고 고용불안이 극심해졌다. 반면 사교육비가 치솟고 부동산 투기로 부채 이자 부담이 늘고 등 가계지출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고용은 악화되고 지출은 늘고 수명 증가로 노후는 길어지는데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는 상황에 사람들은 직면했다. 유럽과 같은 사회 안전망과 복지 인프라도 없고, 미국처럼 활발한 산업 생태계도 없어 해고되면 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태가 됐다. 과거 일본식 종신고용을 흉내내던 시절도 외환위기 이후 끝나버렸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이혼과 자살률이 급증하는 한편 가족간 유대도 빠르게 허물어졌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들었지만 심중팔구는 손해를 보거나 본전치기 정도에 그쳤다.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몇 년 새 빠른 속도로 개인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다.

이제 과거와 같은 재테크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우리의 주머니를 노리는 가짜 정보와 대박 환상에서 벗어나 다시 착실하게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좋은 재테크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투자를 하더라도 대박 환상은 버려야 한다. 투자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거나 은행 이자보다 1-2% 정도 높은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실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그 이상을 노린다면 투기 심리에 빠지게 되고 가짜 정보에 속아서 낭패를 볼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일반가계보다는 건설업체나 금융권과 유착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재테크를 조장하고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일반 저축 상품에서 얻는 이자 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도 투자 상품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거나 없애는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은 침체되면 정부가 앞장서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계 저축률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부 정책이 과연 정상인가.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고용 안정성을 키우고 사회 안전망과 복지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하기는커녕 계속 재벌과 국제자본의 이익과 논리에 휘둘러 사람들을 무한경쟁에 시달리게 했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에 속속 넘어간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 및 건설업계, 부동산, 언론들이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가계에 대해 탐욕과 공포를 조장하면서 재테크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돈 따먹기 투쟁'이 일상화된 사회가 됐다.

그런데 과연 이런 재테크 열풍은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었을까? 물론 누군가는 운 좋게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가. 많은 이들이 2000년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고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주식시장에도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뛰어

엔제 잘릴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만 해서 생계를 꾸릴 수도, 편안한 노후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인식은 재테크 열풍으로 이어졌다.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에 불어닥친 닷컴 열풍은 재테크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모두가 '부자 아빠'가 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앞다투어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소위 대박 신화는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금으로, 펀드로 다양하게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재테크 광풍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 이처럼 무분별한 재테크 열풍이 불게 된 데에는 정부와 금융권 등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불안해진 사람들의 삶을 안정되게 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

객석

'넛지'를 통한 범죄 예방



김경태 제일기획 GSCS팀 프로

최근 부산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넛지' 개념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솔루션을 만들었다. 부산경찰청이 관할 내 취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라이트' 캠페인이 바로 그것이다.

이 캠페인은 환경이 저자분하거나 열악하면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는 범죄학 이론에서 착안한 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 솔루션(셉트드: Crime Protec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부산'이라는 지역성을 덧입혔다. 어두운 골목에 희망의 '빛'을 입히기 위해 인터랙티브 보행등을 설치하고 지나가는 보행자의 동작이 인식되면 "마!"가 튀어나도록 했다. '마!'는 부산시민 누구나 그 특유의 정서와 의미를 알 수 있는 부산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말이다.

사회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고 벌금을 매기는 솔루션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고 그 과정에 웃음과 즐거움을 더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귀갓길에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면, 또 다른 팔꿈치가 필요한 곳을 찾아보기를 제안해 본다.

'넛지(Nudge)'는 팔로 쿡쿡 찌른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사람들의 행동에 은근슬쩍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강제성없이 초기 기본 조건의 변화나 작은 유인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 문제나 정책 분야에서 '넛지'라는 개념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당시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미국 텍사스주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벌을 제정하고 벌금을 늘리는 강제적인 방식 대신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개념없는 짓이고 창피한 일이다'라는 인식을 심기 위한 'Don't Mess with Texas(텍사스를 더럽히지 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 효과가 1년 만에 쓰레기가 29% 감소하고 6년 후에는 72%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기자수첩

'무한도전'이 보여준 '극한세상'



최두선 문화부/sun@

"그동안 편하게 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라는 방송인 하하의 말에 "왜래 사람들이 남 일은 잘 몰라요. 아직도 힘든 일 하는 사람이 많아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6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한 장면이다. '극한 알바'라는 타이틀 아래 멤버들은 사회 곳곳의 '극한' 직업을 직접 체험했다. 63빌딩 외벽 유리창 닦기부터 1050m 지하 탄광까지 아찔하고 위험한 직업군이 총망라됐다.

시청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직종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깨우치고, 그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잠시나마 대신 경험했다. 이기적이지 않으면 손해 보는 세상에서 '나의 불편함'이 아닌 '남의 불편함'을 돌아볼 기회였다. 남을 배려

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진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국 나의 편리함으로 돌아오는다는 이치는 먹고 살기에 바쁜 현실에서 이상에 가까웠다. 하지만 '무한도전' 멤버들의 도전은 지금 오직 나 혼자만 죽도록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일깨워준다.

'무한도전'에 담긴 삶은 참 치열하다. 일개 예능프로그램이 현 시대의 슬픈 자화상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짜인 각본, 픽션 아래 웃음과 감동을 책임졌던 예능이 이제 '현실'을 다루며 시청자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무한도전' 김태호 PD는 '극한 알바' 해와 편을 준비하는 등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예능의 본질인 웃음도, 멤버들의 휴식 시간도 뒷전이다. 이는 시청자의 욕구와 직결된다.

키워드는 공감이다. 지금의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힘이 간절하다. 데이비드 호우의 '공감의 힘'에서 볼 수 있듯 인간은 자신을 공감해 줄 사람을 찾아 헤메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고통에 빠진다. 할림은 공감을 찾는 작업에서 시작한다. 이 점이 '무한도전'이 가진 가장 큰 힘이다.

설경진의 투머속살

주식시장은 '호갱님~'이 아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워싱턴은 주식시장을 '호갱님(호구+고객)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내놓은 증시활성화 대책이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한 대책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정사업본부와 은행들의 주식투자 한도를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 강화를 위한 한국판 스톱어스 코드 제정, 국민연금 투자손실 면책조항 신설, 자기 또는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 인수 후 3개월 경과 전이라도 시장을 통한 매매 허용, 한국판 다우존스지수 개발 등 내놓은 대책의 대부분이 기관과 증권업기관들을 위한 대책이다.

현재의 주식투자 한도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우체국이나 은행에 투자 한도를 늘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투자할 상품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투자할 상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인가.

거래세 인하는 당장 정부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낮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장사들과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원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그저 세금을 걷기 위한 '호갱님'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주식시장, 아니 나아가 자본시장은 선진화를 명분으로 선진국에도 없는 희한한 제도로 누더기 시장이 된 지 오래다. 코스닥 작전세력이나 개미들의 정치태마로 인한 폐해는, 현물의 공매도와 파생상품 심지어 외환시장까지 연계한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폐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국회도 주식시장을 '호갱님' 취급하

기는 마찬가지다. 말 많은 새도보팅은 3년간 유예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추종 결의 요건은 개선의 움직임이 없다.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는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3% 이내로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선진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희한한 제도다. 주주총회 보통 결의 요건도 발행주식수의 25% 이상 주주가 참석하고, 출석의결권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런 규제도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국회의원 선거도 이 요건대로 바꾸기를 제안한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지역구 전체 인구 중 25%가 투표해야 하고 이 중 50% 이상 지지를 얻어야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는 의원이나오지 않도록 말이다. 또 법안을 발의한 당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 시 다수당이더라도 3%만 인정하도록 하자.

내가 싫고 어려운 것은 남들도 싫고 어려운 법이다. 시급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기 전에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듯이 말이다. 주식시장은 워싱턴의 '호갱님'이 아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정책과 규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자본시장부 차장 skj78@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혁,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문화부, 광고접수, 광고문의, 윤리인뉴스부, 자본시장부, 미래산업부, 사회팀, 구독신청, 배달안내,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Advertisement for the novel '영영이별 영이별' by Kim Byul-ah. Features a woman's portrait, the book cover, and promotional text: "이 은밀하고 간절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주실 전가요?",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 간 단종과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 65년의 처절한 사랑이 김별아의 소설로 다시 태어나다!", "칼끝을 견뎌 살아온 인생, 끝내 살아내리라!", "왕비에서 평민으로, 날뚱팔이꾼, 걸인, 바구니까지 피와 탐욕으로 점철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켜낸 은애(恩愛)의 기억 단종 비 정순왕후가 고백하는 두 해 남짓의 사랑, 예순다섯 해 그리움", "김별아가 썼다. 이제 내 차례다. 낭독콘서트 <영영이별 영이별>이라는 이름으로 활자와 배우가 만나는 시간. 이 떨림은 무엇일까?" -연극인 박정자, 그녀의 존재를 말하면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한다. 세상이 외면했던 65년의 고독을 말하면, 경악한다. 그녀가 울겨잡았던 은기. 이름 모를 여인들의 거친 손을 말하면 눈물짓는다. 삶은 수다한 이유와 목적을 떠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유이자 목적임을. 나 또한 그녀를 쓰고 나서야 알았다. 일이라고. -'작가의 말, 중에서', 김별아 장편소설 영영이별 영이별, 사륙판 | 양장본 | 272쪽 | 13,800원



보온, 방수, 미끄러짐에 강하다.

골프화 겸 일상화로 착용이 가능한 에스키 양털 레저화!

- ◎ 양털 신발은 털과 털사이에 공기층을 형성, 따뜻하고 쾌적한 착화감을 보장합니다.
- ◎ 외피 100% 천연가죽, 내피 100% 천연양털, 인솔 기능성 천연가죽을 사용합니다.



[단화형]
소비자가격: ₩210,000원
JM 2483 / 색상: 짐밤색, 검정색 / 판매가격: ₩168,000원



[부츠형]
소비자가격: ₩225,000원
JM 2481 / 색상: 검정색, 진밤색 / 판매가격: ₩180,000원

www.jandiro.com 제품문의: 02)6909-8834 서울역점: 02)6959-4900 목동점: 02)2608-7400
분당점: 031)715-9933 인덕원점: 031)422-8688 광주점: 062)351-9000 전주점: 063)276-5000

OPEN 서울역점
사/은/품/증/정



Cover Story '브랜드 마케팅' 새바람

공감과 소통... 친구처럼 다가선 기업

기업의 브랜드 전략이 달라졌다. 과거 제품 광고와 기업 일리기에 주력했다면 지금은 브랜드 별로 흩어진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스토리를 부여,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0년대 초 기업들은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의 뇌리에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데 집중했다. 광고에 등장시킨 유명 연예인들의 인기를 브랜드 인지도에 덧씌웠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아닌 인기 연예인의 이미지에 매몰됐다. 브랜드가 이들 유명인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자 기업은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이러한 브랜드 전략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인기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제품 자체의 성능과 브랜드 우수성을 이미징하는 데 역량이 집중됐다. 이때부터 더 이상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현대자동차의 전략 차종 광고에 인기 연예인이 등장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오로지 제품 홍보에 주력했고, 그 결과 프리미엄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다.

최근엔 소비자와 접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다. 한 대기업 마케팅 담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발달하면서 일방 통행식 홍보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최신 브랜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브랜드 전략의 최신 흐름은 기업을 소

삼성·LG 등 직장 에피소드 드라마 제작 이미지 메이킹 시민 초청 공장 견학·체험 행사... '나눔의 장' 마련도 SNS시대 발맞춰 '젊고 유연함' 강조 대중과 교감 나서

재로 한 드라마 열풍에서 잘 드러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합상사 직원들의 일상을 담은 tvN 드라마 '미생'이다. 미생은 '상사맨'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 배경인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미생의 인기로 인해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소통"이라며 "공동 관심사가 생기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는 물론 거래처와의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극적인 요소로 인해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부문이 있지만, 종합상사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업무 성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회사 인지도도 꽤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감성을 자극하는 극적인 요소가 대중과의 교감을 이끌어 내는 데 큰 효과를 내자 자체 드라마 제작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삼성그룹은 웹드라마 '최고의 미래'를 통해 '젊은 삼성'일하고 싶은 직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삼성그룹의 소셜미디어 채널과 네이버, 다음,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최고의 미래는 10월 28일 첫 공개 후 한 달여 만에 누적 조

회 수 1000만회를 돌파했다. 최고의 미래는 10대(29%), 20대(23%), 30대(22%), 40대(22%) 등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연령대별로 고른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그룹은 내년에도 드라마 등 스토리 기반의 영상물을 제작해 인재상과 주요 사업, 근무 환경을 비롯해 '젊고 유연함' 기업 이미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LG그룹은 지난달 사내방송을 통해 국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빅브레이크 시즌2'를 방영했다. 빅브레이크 시즌2는 가상의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시장선도를 위해 필요한 일하는 태도와 자세 등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표현한 시트콤이다. LG그룹 관계자는 "LG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사례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우리 직장인들의 모습을 그려냈다"고 말했다.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도 기업들의 치밀한 브랜드 전략이 엿보인다.

삼성전자는 1997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TOP(The Olympic Partner)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 2014년 소

치 동계올림픽까지 9회 연속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로 활동해 왔다. 특히 삼성전자는 소치 동계올림픽 선수단 전원에게 '갤럭시노트3'를 제공, 전세계 30여명의 사선이 집중된 개막식에서 상당한 홍보 효과를 누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IOC와 2020년까지 올림픽 공식 후원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공식 후원한다.

중국 의류브랜드 361°은 얼마 전 폐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아 마케팅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361°는 중국 내 2000여개 지역에 78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스포츠 용품사다. 연간 매출액은 8조6000억원에 이른다. 361°는 인천 아시안게임 최고 후원 등급인 프레스티지 파트너로 참여해 선수단의 유니폼에 자사 브랜드를 새겨 넣었다.

일반인들에게 사업장을 공개해 친근감을 높이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어린이, 청소년, 독거노인, 외국인 등 국적과 연령에 상관없이 초청 행사를 열어 공장 견학과 각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SK하이닉스, 금호석유화학 등 다양한 기업이 생산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해 나눔 활동을 펼치며 스킨십을 확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js62@

커버스토리 18-19면



금호석유화학



대우인터내셔널



KIA MOTORS



쌍용자동차



삼성그룹 '최고의 미래'



LG그룹 '빅브레이크'



tvN '미생'

드라마 찍는 기업들... 폐북 동영상엔 1만여개 '좋아요'

(삼성 '최고의 미래')

스토리·영상으로 소비자와 교감

'최고의 미래', '빅브레이크', '불꽃드라마', '미생'... 기업들이 직접 만들거나 제작을 지원하는 드라마(웹드라마)가 붐처럼 쏟아지고 있다. 드라마 형식을 빌려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여기에 TV 드라마의 PPL(간접광고)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고 소비자에게 거부감없이 다가설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10월 말 그룹 신입사원과 아이돌

스타 지망생의 이야기를 다룬 웹드라마 '최고의 미래'를 선보였다. 5부작(총 75분)으로 제작한 '최고의 미래'는 지난해 '무한동력'에 이은 삼성의 두 번째 웹드라마다. 아이돌그룹 걸스데이의 민아가 삼성의 글로벌 인재 양성제도인 지역전문가에 도전하는 재기발랄한 신입사원 '미래' 역을, 배우 서강준이 무대 공포증을 딛고 가수 데뷔를 도전하는 '최고' 역을 맡았다. 극 중 미래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장면들은 모두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수원디지털시티에서 촬영해 일반인들은 볼 수 없었던 삼성 내부의 모습을 공개하며 친근한 기업 이미지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삼성, 걸스데이 민아·서강준 주연 '최고의 미래' 공개 한 달만에 조회 1000만건 돌파하며 인기 한화 '불꽃드라마' 사랑 소재로 불꽃축제 알려 LG '빅브레이크' 제작·출연 임직원 참여 눈길 대우인터, 드라마 '미생' 지원 종합상사 재조명

연스럽게 홍보한 것.

LG그룹은 사내 방송을 통해 지난달부터 '지상선도 시트콤 빅브레이크 시즌2'를 방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방송한 시즌1의 반응이 좋아 시즌2도 시작했다. '지상선도'는 LG의 대표적인 경영목표다. 제목의 빅브레이크는 구호만 외쳐서는 안되며 업무 중에 만나는 여러 난관을 헤쳐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그맨 유민상을 제외한 웹드라마 제작과 출연진 모두가 사내 임직원 참여로 이뤄진 것이 이채롭다.

웹툰을 원작으로 방영되고 있는 '미생'은 종합상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종합상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치열한 삶을 바깥감 넘치게 그려내면서 젊은 세대는 물론 종합상사 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고 있다.

종합상사는 1980-90년대 한국 산업이 수출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룹의 수출 창구 구실을 맡았다.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던 그 당시 많은 젊은 이가 전 세계를 누비는 상사맨을 꿈꾸며 종합상사 입사에 나섰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IT 업계로 사업과 관심이 집중되고, 자체 해외 영업망을 갖춘 제조업체들이 늘면서 예전의 위상을 잃었다.

미생은 현재 대우인터내셔널과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관련 기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생의 극 중 배경이 되는 대우인터내셔널은 제작 자문을 비롯해 연기자들이 촬영을 앞두고 적응 시간을 갖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생이 히트를 치면서 종합상사에 대한 취업 준비생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또 그간 재계의 한편으로 밀려 있던 종합상사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최고의 미래'는 온라인에 공개된 지 한 달여 만에 무려 누적 조회수 1000만건을 돌파하며 거센 화제를 모았다. 그룹 블로그에는 2500여개의 관련 댓글이, 삼성그룹 페이스북에 소개된 드라마 티저·본편 영상 등에는 1만1000여개의 '좋아요'가 달리기도 했다. 삼성은 앞으로도 젊고 유연한 삼성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 웹드라마 등의 스토리 기반 영상물을 제작할 방침이다.

한화그룹은 최근 연간 불꽃캠페인인 'Color Your Life(당신의 불꽃은 무엇입니까?)'의 일환으로 '불꽃드라마-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선보였다. 5분간의 웹드라마는 정춘의 사랑과 이별을 현실감 있게 묘사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는 '사랑'이라는 테마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웹드라마는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지만 5년 만에 이별했던 연인이 서울세계불꽃축제를 관람하던 중 지난 5년간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고 옛 연인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면서도 화려한 영상미로 그룹의 사업 중 한 부문인 불꽃축제를 자



기업 로고의 비밀

정체성·비전·감성



이 안에 다 있다

삼성 '파란 타원' 우주와 세계무대 상징 SK '날개' 에너지·정보통신 비상 표현

(HYUNDAI)와 병기했다. 이후 기업 이미지 고급화 차원에서 2010년 심벌마크를 지금의 3차원 형상으로 변경했다.

기업 로고는 단순한 기업명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로고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선호도를 높이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로고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기업의 정체성과 비전을 표현해야 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도 담고 있어야 한다.

파란색 타원 마크 위에 흰색 영문 '삼성(SAMSUNG)'이 쓰여 있는 삼성그룹의 로고는 '신경'이 시작된 1938년에 새롭게 탄생했다. 글로벌 기업을 지향했던 만큼 계열사 브랜드를 통일, 그룹을 상징하는 통합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삼성그룹 로고는 인재·기술·인류공헌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파란색 타원은 우주와 세계 무대를 상징하고 타원 밖으로 나온 영문 'S'와 'G'는 세계와의 소통 의지를 표현한다.

자동차 업체는 다른 산업보다 로고에 민감하다. 자동차에 부착되는 만큼 시종일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1967년 영문 심벌마크 'HD'를 한자와 함께 표기하는데 이어 1993년부터 영문 심벌마크를 'H'로 줄여 영문 '현대

SK그룹은 지금의 '행복날개'가 있기까지 총 네 차례 로고를 바꿨다. 1953년 선정직물로 출발한 SK그룹은 1997년까지 한자로 된 '鮮京(선경)' 로고를 사용했다. 이후 1998년 한자 대신 영문 이니셜 'SK'로 로고가 단순화됐고 2005년에는 오른쪽 위에 행복날개를 단 'SK' 로고가 탄생했다. 연과 통신위성을 모티브로 한 행복날개는 SK그룹의 두 성장축인 에너지·화학과 정보통신의 비상을 표현한다.

LG그룹은 1995년 세계화를 겨냥해 로고를 지금의 영문 'LG'로 교체했다. 영문 로고 왼쪽에는 둥근 원 속에 'L'과 'G'를 두고 있는 '미래의 얼굴'을 형상화한 심벌마크가 있다. 이는 세계-미래-젊음-인간-기술 등 5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심벌마크는 인간 중심의 그룹 경영을 의미하며 나아가 국내외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LG인의 결의를 나타낸다.

총 네 차례의 로고 변경을 거친 한화그룹은 2007년 '신뢰·존경·혁신'을 의미하는 '한화 트라이서클' 로고를 완성했다. 한글 '한화' 옆에 위치한 트라이서클은 세 가지 의미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무한 발전하는 한화그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gully@

함께 보고, 즐기고, 나누며 소비자와 '스킨십' 강화

기업 '체험형 마케팅' 뜬다

기업은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 다양한 체험형 마케팅을 실시한다.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에서 벗어나 함께 보고 체험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고객을 사업장에 초대하는 것은 보편화된 체험 마케팅 중 하나다. 생산시설로 고객을 초대해 제품이 소비자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줘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업계에서는 활성화된 자동차 동호회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10월 '코란도C' 동호회 회원 40가족 120여명을 평택공장에 초청해 공장 견학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코란도 C가 제작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봤다. 당시 행사에 참가한 김상권(36)씨는 "숙련된 생산직원들의 작업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나니 내 차는 물론 쌍용차에 대한 애정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수입차도 자동차 동호회를 위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차량을 소유한 고객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해서다. BMW그룹 미니 주행교육 기회도 삼성전자는 TV경매 수익금 기부 현대모비스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사회공헌 결합 마케팅도 활발해

수입차도 자동차 동호회를 위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차량을 소유한 고객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해서다. BMW그룹 미니 주행교육 기회도 삼성전자는 TV경매 수익금 기부 현대모비스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사회공헌 결합 마케팅도 활발해

체험형 마케팅에 기업사회공헌(CSR)을 결합한 모델도 최근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엔지(Enzy)와 함께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엔지는 가야차기 유스(Youth) 마케팅을 위해 지난해 선보인 회사의 대표 캐릭터다. 현대모비스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우산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

쌍용차 동호회 초청 생산라인 견학
BMW그룹 미니 주행교육 기회도

삼성전자는 TV경매 수익금 기부
현대모비스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사회공헌 결합 마케팅도 활발해

”

삼성전자는 지난달 열린 세계 최대 예술품 경매 행사 '크리스티(Christie) 홍콩'에 삼성 커브드 UHD TV 특별관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경매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 어린이를 돕는 비영리 단체 홍콩 오르비스 재단에 기부했다. 이 같은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미래 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기업시민의식'의 강화도 공감형 마케팅이 활성화되는 이유다. 기업시민의식은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공공 역할을 강조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 소장은 "이제 CSR은 기업이 상품을 차별화하는 중요한 전략이며 수요자의 수요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이라며 "기업도 CSR을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행위로 생각해야지, 무관하다고 생각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 이익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① 쌍용차 '코란도C' 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쌍용차 평택공장을 견학하고 있다. 사진제공 쌍용자동차

② 미니 고객들이 지난달 인천 영종도에서 드라이빙 교육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BMW그룹코리아

무려 8억 원까지 연 4% 수익률

(세전, 2014.11.17기준, 3개월물, 개인고객)

파워 상표가 뜬다



파리바게뜨·파스쿠찌... SPC그룹

도브·립톤·바세린·폰즈... 유니레버

기업명은 몰라도 "아, 이 브랜드!"

기업은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을 개척하고 유지하기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내세운다. 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많은 브랜드를 소유하게 된 경우도 있다. 이같이 한 기업이 몇 티 브랜드를 보유하는 형태이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기업보다는 브랜드를 기억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도브, 립톤, 바세린, 폰즈 등은 유니레버 기업의 유명 브랜드다. 우리가 즐겨 먹는 레몬 아이스티 브랜드 립톤은 사실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통해 살아남은 브랜드다.

LG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유니레버의 경우 1999년 1600여개의 브랜드를 운영했다. 이에 고객에게 전달되는 유통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느껴 브랜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해 파워 브랜드 400여개를 골랐다. 이후 선별된 브랜드에만 60억 달러의 광고 및 프로모션 비용을 집중기로 결정했으며, 잘나가는 브랜드는 계속 성장시키고, 그렇지 못한 브랜드는 도태되는 적자생존의 게임

이 펼쳐졌다.

한 가지 이름으로 꾸준히 고객들에게 남아 온 장인정신이 빛을 발한 경우도 있다. SPC그룹의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1988년 서울 광화문에 1호점을 낸 이후 현재 해외 5개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연 글로벌 베이커리로 성장했다.

파리바게뜨가 처음 문을 열 당시 주식회사 이름은 파리크라상이었으며, 허창성 삼립식품 명예회장의 차남인 허영인 회장이 독립해 1983년 (주)사니를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했다. 허 회장은 1994년 사니를 비롯한 계열사를 한데 묶어 태인사니를 출범시켰고, 2004년 그룹 명칭을 SPC로 바꿨다. 회사 이름은 바뀌어도 브랜드는 꾸준히 파리바게뜨를 유지하면서 남아 온 덕에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SPC그룹은 이 외에도 파리크라상, 파스쿠찌, 잠바주스, 라그랄리아, 캔즈파크, 패션5 등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대신증권 특판 RP

장은 목혀야 제 맛이지만
돈은 굴려야 살 맛 납니다.
당신의 자산,
낮은 수익률에 목하지 말고, 옮기세요.
대신이니까 크게 드립니다.



조건별 우대수익률 및 한도

구분	자산일고 고객	신규 고객
우대수익률	연 4.0%(세전)	연 3.7%(세전)
개인한도	최대 8억원	최대 5억원
조건	회사 ELS, 연금저축, 펀드, 채권 일고 시	체크카드 발급 및 10만원 이상 지출이체 등록 (1년이상)
비고	자산일고 금액을 합산하여 일고금액 만큼 우대한다 부여 (단, 펀드 단독은 불인정)	당시 신규고객의 계좌개설과 우대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중도해지	중도해지시 가입시점의 수시RP 이용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특별판매조건 등 세부사항은 영업점 및 고객감동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이 손실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RP수익률은 일일시 회사가 고시하는 익당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P의 만기일 이전 중도해제할 경우 당초 익당수익률보다 낮은 중도해제수익률로 지급됩니다. *RP는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한국금융협회 심사필 제14-07914호(2014.11.20-2015.11.19)

기술의 혁신 넘어 고정관념 깬 발명품

5대 IT제품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0년 미국 IT잡지 PC월드가 '100대 베스트 IT 제품'을 선정할 적 있다. 그때만 해도 스타크래프트 등과 같은 대작 게임, MS 오피스 2010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을 받은 혁신 IT 제품의 유형도 변하고 있다. 올 한해 역시 IT업계에 다양한 혁신 제품들이 출시, 소개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의 타임지는 최근 2014 베스트 발명품 25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발명품 목록에는 애플워치, 셀카봉, 3D프린터 등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방식의 IT 기기들이 대거 포함됐다. 올 한해 소비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은 제품들을 소개한다.



① UHD TV

풀HD보다 4배 선명
삼성·LG 시장 선도



지난 몇 년간 3D와 스마트TV가 TV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다면 올해부터는 풀HD보다 해상도가 4배 높은 UHD TV가 그 대열에 합류했다고 볼 수 있다.

UHD TV는 기존 TV 화면보다 화질이 훨씬 더 선명하다 보니 실물에 가까운 생생한 화질을 제공한다. HD급은 사람의 모공이 희미하게 보이는 데 비해 UHD급은 모공뿐 아니라 어린이의 손털까지 볼 수 있다. 또 단순히 해상도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색 재현력이 좋아지면서 입체감 있는 화면을 전달할 수도 있다.

UHD TV의 첫 상용 무대는 소치올림픽이었다. 올림픽 시청자들은 실제로 UHD TV를 통해 선수들의 땀방울, 움직임에 반응하는 얼음조각, 떨리는 피부 등 좀 더 실감나는 표현력을 통해 경기를 보다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UHD TV는 한국, 일본, 중국의 TV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는 유럽과 북미 등 선진시장에서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실제 디스플레이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UHD TV 시장의 주요 업체 점유율(매출 기준)은 삼성전자 36%, LG전자가 15%로 전체 시장의 51%를 선점했다. 이어 중국의 하이센스(10%), 일본 소니(9%), 중국 창홍(6%) 등이 뒤를 이었다.

② 3D 프린터



전투기·부품·과자...
고객 맞춤 소량 생산

2014년 주목받았던 아이템 중 하나는 바로 3D 프린터다. 3D 프린터는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만든 3차원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실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실물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기계다. 어떤 제품이든 설계도만 있으면 플라스틱은 물론 고무·금속·세라믹 등 150여개 소재로 하루 만에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다.

3D프린터 덕분에 영국 항공방위산업체 BAE시스템스는 최근 3D 프린터로 만든 금속 부품을 장착한 토네이도 전투기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독일 전자제 조업체 지멘스 역시 지난해 말 3D 프린터로 가스터빈 부품을 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두주자인 3D 시스템즈는 식재료를 넣고 요리법을 선택하면 사람과 초콜릿, 과자와 케이크를 만들어 내는 제품도 나왔다. 결국 3D 프린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 분야에서 기술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혁명에 가까운 산업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진다. 고객 맞춤형 소량 생산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많다. 유럽에서는 '이 세상 유일한 당신의 자전거'를 제작해 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일본에서도 개인 맞춤형 모형을 제작해 주는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③ 구글글라스

사진찍고 바로 전송
필요 정보도 '안경에'

멋지게 생긴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다. 안경하나 썼을 뿐인데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곧바로 사진도 찍고 친구들에게도 보내고 있다. 또 안경에 의존해 초행길임에도 쉽게 목적지까지 걸어가고 있다. 갑자기 안경에 바깥 온도가 32°C라고 뜨자 가방에서 휴대용 선풍기를 꺼내기도 한다.

이는 올 한해 전 세계를 들뜨게 한 '구글 글라스'를 착용한 이의 모습이다. 구글 글라스는 눈에 비치는 갖가지 정보를 작은 화면에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날씨, 주식, 메시지, 메일 등 필요한 정보가 안경을 통해 눈에 바로 들어온다. 게다가 내비게이션 기능은 물론 AR(증강현실) 기능을 부가해 주변 음식 메뉴와 가격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다.

구글 글라스는 2012년 공개한 이후 2년간 상용화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소수의 소비자들만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4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잠시 한정 판매를 진행했으며 5월에는 미국 전역에서 1500달러(153만원)에 판매됐다.

구글 글라스 앱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5년 신형 제네시스에 구글 글라스 '프리드라이브'라는 응용프로그램(앱)을 탑재할 방침이다. 신형 제네시스 운전자는 구글 글라스를 이용해 원격 시동, 주행 루트 선정 등 주행 전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앱은 주행 전 사용되며 운전 중에는 작동되지 않는다.



④ 스마트워치



손목 위 디스플레이
전화·메시지 多 된다

"손목 위를 잡아라!"

올해 들어 스마트워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스마트폰 기능을 대부분 수행해내는 스마트워치는 외형은 손목 시계처럼 보이지만 일기, 메시지, 알림, 주식 시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선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도 있다. 물론 전화 받기, 문자메시지 이용하기는 기본이며 웹 브라우저로 자기의 계정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에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떨어지는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애플은 9월 애플워치를 공개했다. 애플워치는 휴대전화를 그대로 줄여 넣으려고 했던 기존 스마트워치와는 달리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손목 위에 컴퓨터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 특정 삼성 스마트폰과의 연동만 가능했던 기존 기어 모델과 달리 안드로이드 4.3 이상의 어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도 연동할 수 있는 기어 라이브를 선보였다.

LG전자 역시 애플의 시리와 비슷한 음성인식 기반의 구글 나우를 제공하는 'G 워치 W100'를 출시했다. 이를 통해 음성으로 근처 음식점, 건물 등을 검색하거나 이메일도 보낼 수 있다. 올웨이즈온 기능을 탑재해 24시간 화면이 꺼지지 않고 슬립모드 상태에서도 시간을 보여준다.

⑤ 셀카봉

전세계 셀카족 애용
다양한 제품 진화



전 세계 셀카족들의 사랑을 받은 셀카봉이 올해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됐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지난달 셀카봉을 포함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 25가지'를 발표했다.

타임지는 "올해 들어 셀카봉 덕분에 셀카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며 "미국인의 최소 4분의 1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셀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셀카봉은 팔이 닿지 않는 길이에서도 셀프카메라를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좋은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하다. 또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셀카를 찍는 일반형 외에도 리모컨이 막대에 부착된 일체형, 블루투스 셀카봉의 경우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 분류돼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등의 시험을 거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집중단속대상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한편 셀카봉에 대한 인기와 함께 개발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다양한 설도 생겨났을 정도다. 셀카봉은 인도네시아에 사는 다이애나 헤마스 사리(21세)가 최초 개발자라는 주장도 있고, 온라인 전자제품 유통업체 교간이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에게 보낸 시제품이 가장 처음이라는 설도 있다. 또 산악 사이클 등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들이 헬멧에 카메라를 고정하려고 사용한 액세서리가 시초라는 이야기도 있다.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보안 전문 기업 - 하우리
SECURE YOUR NETWORK WITH HAURI
HAURI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별 지능형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 제품구입문의: 02) 3676-1100

특이점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 방법 및 그 기록 삭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ViRobot DataEraser X v1.0

www.hauri.co.kr

더 편하고 더 똑똑해지는 라이프스타일

2015 January

5대 IT트렌드

정보통신기술(ICT)은 자고 일어나면 유행이 변해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변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몇 년간의 큰 흐름 안에서도 소소한 변화의 혁신을 일으킬 2015년 IT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갈까. 2015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많은 연구소와 시장분석 기관들이 올 한해 흐름을 바탕으로 내년 ICT 트렌드를 짚어내고 있다. 다수 기관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5가지 트렌드를 추린 결과 △사물인터넷의 활성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확대 △금융에서의 핀테크 도입 △스마트폰 시장 변화 △모바일 헬스케어 팽창 등이 꼽혔다. 이들 기술의 공통적 특징은 소비자 중심에서 바라본 기술과 서비스라는 점이다. 박성제 기자 psj@

① 핀테크

상품결제·주식거래
모바일로 간편하게



“핀테크(FinTech)가 금융을 지배할 것이다.”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인 핀테크가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ICT의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구글, 애플,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세계 ICT 공룡들이 모두 핀테크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플랫폼을 쏟아내고 있다. 핀테크는 말 그대로 금융에 ICT 기술이 더해진 금융거래 기법이다. 특히 모바일을 통해 상품결제나 계좌거래,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IT 업계와 금융계가 바라보는 가장 핫한 기술이자 정책이다. 기술적인 면에서 핀테크는 ICT의 ‘종합예술’이라고 불린다. 플랫폼을 비롯해 통신, 보안, 디자인, UX·UI, 근거리무선통신, 바코드, QR코드 등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ICT가 들어간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핀테크는 이미 대세다. 중국의 알리페이는 자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고, 애플 역시 애플페이 서비스를 선보이며 본격적 미국 내 모바일 결제 시장을 열었다. 구글은 구글월렛으로, 이베이는페이팔로 세계 곳곳에 침투해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조금 다르다.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각종 금융규제 때문에 최근 들어서야 겨우 핀테크라는 개념이 제시됐다. 그나마 다음카카오의 ‘뱅크월렛카카오’가 가지개를 켜고 있다.

② 사물인터넷



버스·의료·안전 연결
생활속으로 드루와~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한다.” 지난해만 해도 생소했던 사물인터넷(IoT) 개념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널리 사용하는 기술로 자리 잡았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부터 의료, 보안, 안전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각종 웨어러블 기기와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도로를 장악할 것이라는 자율운전 자동차까지 모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다. 글로벌 IT시장 조사기업 가트너(Gartner)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인터넷 연결 사물 수는 26억개에서 2020년에는 10배가 늘어나 260억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물인터넷은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이끌 ICT 트렌드라는 의미다. 2015년 사물인터넷의 발전 방향은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기술은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기인터넷이다. CIO 등 IT 전문매체와 기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오픈소스가 프로그래밍의 대세가 될 전망이다, 이것이 적용되면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발에 대한 장벽은 무너진다. 아울러 기기인터넷은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의 개수가 수백억개로 늘어나도 안정적 서비스를 보장해줘 사물인터넷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③ O2O

오프라인 매장 가니
할인쿠폰이 ‘띠리링’

사실 정보통신기술(ICT)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마치 구름 위에 떠다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하지만 ICT가 지상 위로 내려온 서비스가 있다. O2O(Online to Offline)다. 이는 2015년 유통업계의 판매방식을 뒤바꿀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엮는다는 개념으로, 모든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을 한 데 엮는 이른바 ‘오프라인’을 일컫는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모바일을 하나로 연결해 소비자가 마치 한 장소에서 쇼핑하는 듯한 편리함을 주는 ‘오프라인’이 거미줄처럼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O2O 개념을 가장 앞서 사용한 곳은 패션업계다. 온라인으로 물리는 소비자를 다시 오프라인으로 이끌기 위해 활용한 이들은, 이제 모든 오프라인 매장에 태블릿PC를 구비해 온라인으로 재고를 확인하거나 주문할 수 있게 했다. CJ오쇼핑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고객 타겟팅을 진행하는 ATS(자동 타겟팅 시스템)를 자체 개발했다. GS샵은 생방송 중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로 시청자와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 벤처 업계는 O2O에 위치기반 서비스까지 도입해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 매장을 지나가면 모바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신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④ 조립식 스마트폰



맘대로 끼웠다뺐다
세상에서 ‘단 하나’

2015년에는 스마트폰의 트렌드도 크게 변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스펙’ 위주로 발전해 왔다면, 이번에는 철저히 개인의 취향 중심으로 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주인공은 조립식 스마트폰과 중저가폰이다. 최근 구글이 진행하고 있는 ‘아라’ 프로젝트와 핀란드의 서클러 디바이스의 ‘퍼즐폰’이 대표적이다. 서클러 디바이스는 2015년 출시를 목표로 퍼즐폰이라 불리는 조립식 스마트폰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다. 퍼즐폰은 총 3가지 파트로 분리할 수 있다. 각 부분의 명칭은 스파인(The Spine), 하트(The Heart), 브레인(The Brain)이다. 일반 스마트폰의 경우 특정 부분이 고장나도 본체를 교체해야 하지만, 퍼즐폰은 관련 부품만 사서 슬라이드 형태로 갈아끼우면 된다. 구글도 조립식 스마트폰 ‘아라’ 개발에 나섰다. 구글은 이를 두고 소비자 중심 스마트폰이라고 정의했다. 구글이 디스플레이, AP, 통신모듈, 배터리 등 기본 기능을 내장한 스마트폰 프레임에 공급하면 나머지 부품 등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된다. ‘내맘대로’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의 정책과 함께 고객사 사이에도 스마트폰이 확대 보급됨에 따라, 중저가폰 광풍도 불 것으로 보인다.

⑤ 모바일 헬스케어

웨어러블·원격진료
매일매일 건강관리



2015년이 되면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특히 의료와 모바일은 융합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의약품 전자상거래 앱, 의료관계자 전용 앱, 종합의료건강 정보 서비스 앱, 병원 찾기 및 예약 앱, 안과·치과 등 세부 진료과목별로 진단할 수 있는 앱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 3사와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들이 플랫폼 개발에 공동으로 나서서 추세다. 관련 규제만 풀린다면, IPTV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원격의료로까지 외연이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내년부터는 헬스케어 전문으로 하는 웨어러블 기기가 본격 출시되면서 이른바 개인의 건강관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세계 무대에서 모바일 헬스케어의 격전지로는 중국이 꼽힌다. 중국연구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자국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이뤄진 투자는 총 58건이며, 관련 기업은 33개, 공개된 투자 규모는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대 IT 공룡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騰訊·방신)를 비롯해,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사오미 등 중국 거두 기업들이 적극 뛰어들고 있다.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



총 매출 현황 분석 보고서

연도	매출액	이익률	이익액
2014년	1,000,000	10%	100,000
2015년	1,200,000	12%	144,000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OZ

재개발 없이 그대로 앱에서 보고서를 본다!

하나의 소스로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스마트 OZ

OZ Report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태블릿PC에서 별도의 개발 없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전용 앱을 지원합니다.

www.forcs.com

(주)포시에스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 12층 · 대표전화 02)828-1400 / 제품문의 02)828-1431 / 팩스 02)828-1414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 '유엔젤' '조이시티' 급등

〈보로로전화〉

〈주주히어로〉

베스트&워스트 12월 1~5일

◇유엔젤, '보로로 전화' 다운로드 1위에 나올 연속 '상한가'...티웨이홀딩스, 삼성출판사 강세 = 8일 애플리케이션(관리종목·동전주·투자이상종목 제외, 시총 200억원 이상 대상)에서 유엔젤의 주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유엔젤은 74.30% 상승, 3035원에서 5290원으로 올랐다.

유엔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보로로전화(Pororo Talk)'가 인기를 끌면서 나올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급등세를 연출했다. 보로로전화는 일어나기, 밥 먹기, 예절 등 여러가지 주제를 통해 보로로와 대화할 수 있는 유아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로로전화 영어버전은 출시 3주 만에 전세계 구글 플레이스토어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미국, 캐나다,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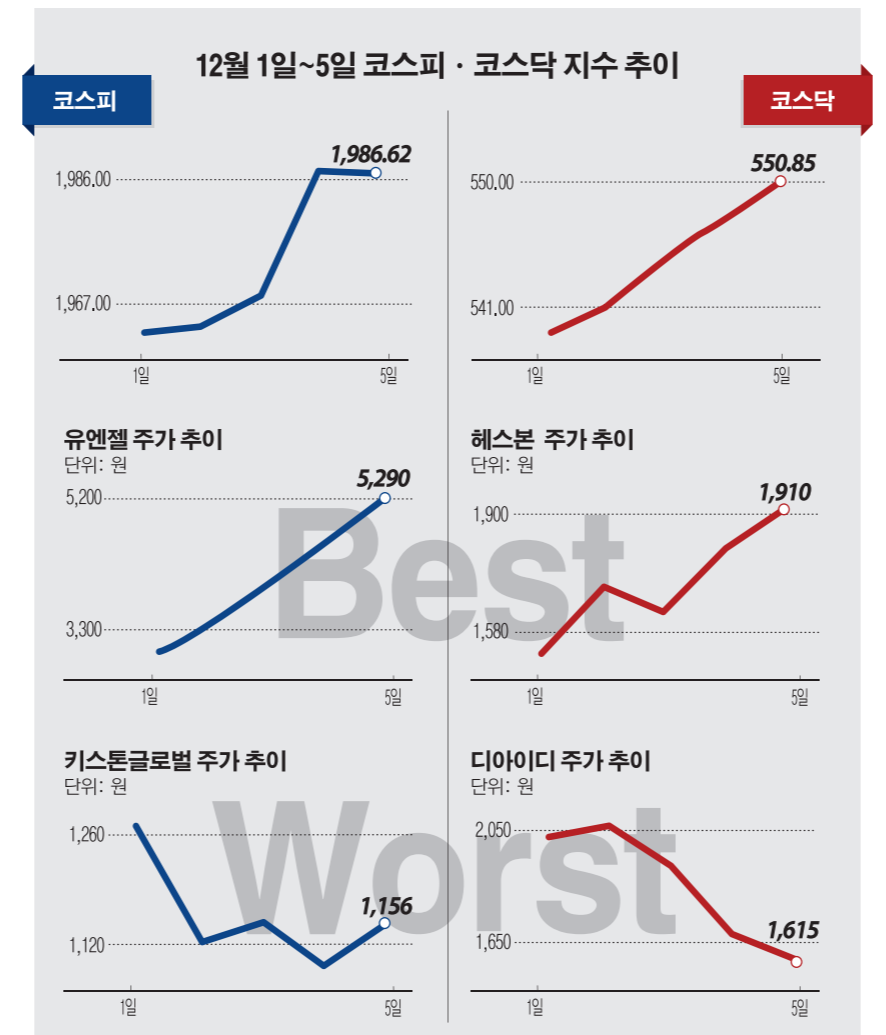
'핑크퐁TV'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교육 부문 1위를 차지한 영향이다.

◇키스톤글로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에 '급락'...사조해표, 영업이익률 부진에 하락 =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은 키스톤글로벌이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하락률은 21.16%로 이 기간 주가는 1465원에서 1155원으로 떨어졌다.

키스톤글로벌 주가가 M&A이슈로 급등락을 보임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 실적 부진에도 하락이 있었다. 2011년 1006억원에 달했던 매출액은 지난해 141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3분기까지 64억원까지 떨어졌다.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선지 오래다. 2011년

12월 첫째주(지난 1~5일) 코스피는 모멘텀 부재 속에 국제유가, 환율, 유럽중앙은행(ECB) 추가 양적완화, 경기 등의 변수가 부각되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 초반 국제유가 급락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며 급락세를 보인 이후 혼조세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주말 대비 5.84포인트(0.29%) 상승한 1986.62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며 상승세로 마감했다. 550선도 회복했다. 지난주 코스닥 지수는 전주말 대비 5.77포인트(1.06%) 상승한 550.85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137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852억원, 651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웨이홀딩스' 유가하락 수익성 상승 기대 29% 쑥 '키스톤글로벌' M&A이슈·3년연속 적자에 21% 뚝 '사조해표' '대상' 실적부진에 나란히 하락 2·3위에

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신규 다운로드 1, 2위를 기록하는 등 교육 카테고리 상위 순위를 석권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장종 5290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도 갈아치웠다.

주가 상승률 2위를 기록한 티웨이홀딩스는 지난 한주간 29.03% 상승했다. 지난 4일 장종 849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28일 석유 수출국기구(OPEC)에서 감산 합의에 실패하며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75.4달러(10.2%) 급락한 66.15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2009년 9월 2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티웨이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티웨이홀딩스는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높게 반영됐다.

삼성출판사가 27.29%로 주가 상승률 3위를 기록했다.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에서 서비스하는 유아 교육 애플리케이션인

1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이후 2012년에는 50억원의 손실, 지난해엔 308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폭도 늘어나고 있다.

주가 하락률 2위를 기록한 사조해표는 18.09% 하락했다. 식품유통시장 경쟁이 심화되며 부진한 영업이익률을 발표하며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조해표는 영업 부대비용이 늘어나며 3분기 영업이익률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15.61% 내리며 주가 하락률 3위를 기록했다. 3분기 어닝쇼크 때문이다. 지난 2일 장종 3만원까지 떨어지며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325억원으로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씨에스원드는 상장 이후 연일 내리막을 걸으며 15.30% 하락했고, 주가 하락률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버행, 공모가 거품 등의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정경 기자 jcha@

◇헤스본, 경영권 양수도 검토 소식에 '급등'...이스트소프트, 중국 게임업체와 계약에 강세 = 8일 애플리케이션(관리종목·동전주·투자이상종목 제외, 시총 200억원 이상 대상)에서 헤스본 주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헤스본은 43.61% 상승, 주가는 1330원에서 1910원으로 올랐다.

이 같은 주가 급등은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사항,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헤스본은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경영권 양수 가능성이 높게 부각되며 주가는 급등세를 연출했다.

주가 상승률 2위를 기록한 이스트소프트는 지난 한주간 39.94% 상승했다. 지난 달 말 국제계정전시회 지스타에서 중국

49.3% 증가한 955억원으로 이익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9240원에서 3만1000원으로 3배 넘게 올렸다.

◇디아이다, 지분매각 불발에 '급락'...대한뉴팜, 아이원스 약세 =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높은 주가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은 디아이다였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하락률은 31.71%로 이 기간 주가는 2365원에서 1615원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소식이 나올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3일 장 종료 후 지분매각이 무산됐다고 밝히며 주가는 큰 폭으로 밀렸다. 디아이다는 최대주주인 코와(KOWA)가 보유한 주식 649만 주(35.14%)를 디에스아이에 65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매수 측인 디에스아이가 잔금을 미지급하며 해지된 영향에 따른 것이다.

주가 하락률 2위를 기록한 대한뉴팜은

'헤스본' 경영권 변경·자금조달 가능성에 들쭉 상한가 행진 '디아이다' 지분매각 불발에 털쭉 '아이원스' 3분기 영업이익 곤두박질 19% 떨어져

창유와 모바일게임 '카발 온라인'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옴에 신고가를 이어갔다. 지난 5일 장종 2만25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또 갈아치웠다.

조이시티가 33.69% 오르며 주가 상승률 3위를 차지했다. 조이시티는 닥새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작 모바일게임의 인기와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조이플(JOYPL)'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작 모바일게임 '주주히어로'가 네이버 앱스토어에서 1위를 달성했고, '건담배틀'의 중국 진출과 애플 앱스토어 출시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선데이츠는 27.98%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주가 상승률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진출 효과와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따른 것이다. 지난달 라인을 통해 출시된 '라인드림'이 iOS 기준 다운로드 순위에서 태국 1위, 대만 2위, 일본 3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내년 매출액이 올해보다 22.9% 늘어날 1824억원, 영업이익은

지난 한주간 20.00% 하락했다. 시장에 특별한 약재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주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제외하고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 8월부터 이 회사가 투자한 카자흐스탄 광구 운영사인 루시의 원유매장구간 확대에 따라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했다.

아이원스는 19.57% 떨어지며 주가 하락률 3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부진한 3분기 실적 발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고 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5.45% 줄어든 165억6405만원, 영업이익은 79.49% 감소한 7억1743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주가 하락률 4위에는 태양기전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 19.02% 내렸다. 특별한 이슈는 부재했지만 삼성전자 등에 휴대폰 부품 공급 감소로 인한 실적 악화가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디지털조선(-18.43%), 인피니트스캐어(-18.41%), 에코플라스틱(-18.34%) 순이었다.
하정경 기자 jcha@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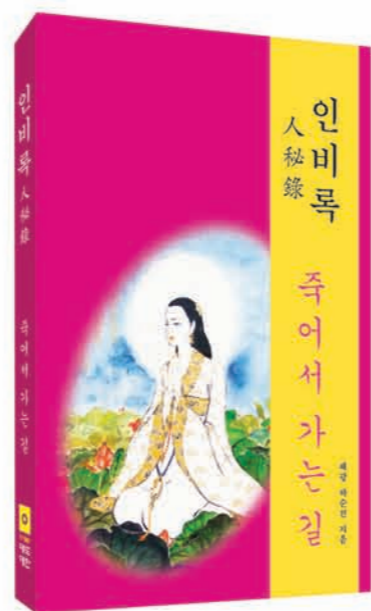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고, 살아가는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어떤 삶을 살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리브로 / 알라딘 / 예스24
부산)영광도서, 부산)세기서림, 인천)대한서림, 인천)부평문고, 인천)인천서림, 대전)보문불교, 대전)계몽문고, 대전)중앙출판, 대전)KG북플러스, 대구)세원출판, 대구)한일서적, 울산)저용서림, 광주)중앙서림, 광주)삼복서림, 광주)조원문고, 파주)자유서적, 안양)중앙문고, 안양)대동문고, 안산)대동서적, 군포)자유문고, 구리)동원서적, 부천)경인문고, 광명)일지서적, 이천)삼성문고, 오산)운암문고, 수원)윤진문고, 원주)동아서림, 강릉)영동서적, 춘천)광장서적, 춘천)춘천문고, 청주)일신문고, 청주)홍문당, 충주)문화사, 제천)제일서적, 천안)열린문고, 구미)춘양당, 안동)교학사, 경주)경문서적, 김해)가아서림, 창원)창원문고, 창원)대신서림, 전주)전주문고, 남해)해양당, 전주)홍지서림, 익산)대한서림, 군산)군일서림, 순천)중앙서림, 여수)대양서림, 목포)국제서림, 제주)탐라도서 등

문의: 063-643-7285 www.dblog.co.kr



도서출판 대도대한 | 값 15,000원

신가치투자자로 돈 번 사람들을 확인하시려면 <www.segerotv.com> 스마트폰 정취가능!

"주식 투자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세계로TV의 신가치투자자로 돈 번 사람들

주식 투자자는 꼭 읽어야 할 책! 주식 투자 베스트셀러!
회원들이 증명하고 국내 여러 기관이 인정한 최고의 투자법!

- ◎ 2014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 수상!
- ◎ 서적 구매 독자를 위한 ₩ 65,000 (세계로 TV) 1일 무료 이용권
- ◎ 무료 주식 강연회

강의: 김원기 대표
주제: 100년만에 온 바이오장!
일시: 11월 15일, 11월 29일, 12월 5일 토요일 오후 2~5시
일시: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2~5시
장소: 5, 6호선 공덕역 6번출구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장소: 워커힌 컨벤션센터 3층 코스모스홀
혜택: 무료회원 가입식 도장지갑 증정

※ 선착순 입장 / 전화예약만됨

문의: 02-336-2226



김원기 지음 | 248쪽
글로벌북스 | 값 14,000원



외양간 고치는 '한수원'... 곳간 채우는 '금화PSC'

신고리 4호기 불량케이블 교체작업으로 수주액 2배 늘어

금화피에스시가 지난 2011년 수주한 신고리 원전의 정비공사의 계약금액이 최근 약 2배 증가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 불량 케이블 교체 작업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며 수주 규모도 커진 것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화피에스시는 지난 5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3, 4호기 시운전 정비공사(기전분야)의 계약금액을 기존 47억9746만 원에서 81억2062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변경 후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8.3%에

해당한다.

이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계약금액 역시 기존 239억8730만 원에서 406억311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변경 계약 체결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결정이다. 신고리 3, 4호기 시운전 정비공사의 계약기간은 기존 올 9월 30일에서 2016년 5월 31일로 늘어났다.

한수원은 작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리 3, 4호기의 케이블 시험 성적서가 위조됐다는 제보가 접수된 후 같은 해 10



월 성능 재시험을 진행했다. 재시험에서 케이블이 불합격 판정이 나오자 3개월간의 철거작업을 거쳐 전량 교체에 돌입했다. 한수원은 JS전선이 깔았던 길이 674km의 600V 전력·제어·계장케이블과 5kV·15kV 전력케이블을 미국 RSCC사의 케이블로 교체하기 시작해 지난달 작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로 예정됐던 신고리 3, 4

호기의 준공 역시 늦춰졌다.

특히 신고리 3, 4호기는 불량 케이블 때문에 한 차례 휴역을 치른 터라 시운전 정비공사의 정밀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금화피에스시는 신고리 원전 3, 4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시운전 정비공사를 담당한다. 기계, 전기의 계통인수 시험지원, 인수된 설비의 예방점검, 연료인수 및 초기연료장전후 기능시험 지원, 각종 기기의 돌발고장 복구업무와 시험에 따른 문제점 조기 도출, 해결을 통한 안전적 품질확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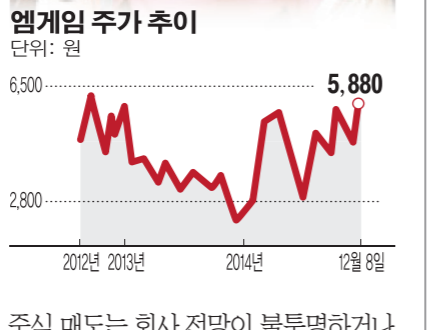
공시돌보기

공주 버리고 떠나는 흑기사들

앱게임 '프린세스메이커' 시들?... 임원, 자사주 줄매각

앱게임의 핵심 사업 담당 임원들이 최근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사업, 모바일 사업이 꾸준히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 담당 이사들이 주식을 팔아치우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해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승훈 이사는 아홉차례에 걸쳐 보유주식 4만 7798주를 전량매각했다. 지난 4월 3일 7900주를 5042원에 장내 매도한 것을 시작으로 5월 21일·28일·29일 5000주(주당 4045원·3797원·3870원), 6월 16일 3547주(주당 3696원), 7월 25일 7000주(주당 3514원), 12월 3일·4일·5일(주당 4750원·4914원·5170원)에 처분했다. 이로써 최 이사는 1억9600만원 가량을 현금화했다.



주식 매도는 회사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거취에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져 주가에 악재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한다. 회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의 지분 매각이 주가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앱게임 관계자는 "두 임원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보유주식을 처분한 것일 뿐, 퇴임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출의 반 이상이 나오는 분야의 담당 임원들인만큼 향후 사업에 더욱 열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앱게임은 16만5494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05% 규모다. 행사금액은 10억원, 행사가격은 4834원이며 상장예정일은 이달 17일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왕좌탈환' 오리온... 中 홈쇼핑은 승 안서네

황제株 복귀했지만 해외사업 부진에 하반기 적자 예상

중국 제과시장 확대에 힘입어 '승승장구' 하고 있는 오리온이 자회사들 통해 야심차게 준비한 중국 홈쇼핑 사업에서는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련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리온이 자회사인 미디어플렉스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중국 호북성에서 운영 중인 홈쇼핑 사업이 지난해 1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5억 8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올 상반기 지분법 평가손실을 반영하면서 손실을 기록하게 됐다"며 "상반기 손실이 모두 반영된데다 지난해부터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손실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리온의 계열사인 미디어플렉스가 중국 홈쇼핑 사업에 본격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투자금 약 150억원을 들여 홍콩에 슈프림 스타 홀딩스(Supreme Star Holdings)를 설립한 뒤 같은 해 이를 통해 후베이 라디오 앤 티브이 매가트레이딩 컴퍼니

(Hubei Radio&TV Mega Trading Co. Ltd)의 지분 49%를 약 314억 원(약 1억 8800만 위안)에 확보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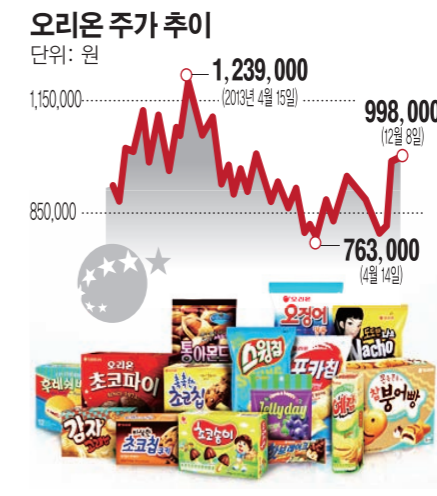
미디어플렉스는 후베이 라디오 앤 티브이 매가트레이딩 컴퍼니를 통해 중국 호북성에서 홈쇼핑 사업을 시작했다.

오리온은 홈쇼핑 사업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홈쇼핑이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한국·일본의 12%, 미국의 8%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3%대 규모까지 성장을 가정했을 때 총규모는 5000억RMB(중국 인민폐)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50배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가능한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매년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등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다만 올해 들어 적자 폭이 줄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일반적인 홈쇼핑 제품뿐만 아니라 차량·부동산 관련 특수 상품 판매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는 다각화된 점이 주목했다는 분석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는 사업



안착을 위해 꾸준히 수익성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내년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중국 홈쇼핑 사업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리온의 주력사업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3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83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149억원으로 2.3% 감소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원익IPSD램시장 성장에

"4분기 영업이익 106% 증가"

내년 D램 시장 성장에 따른 원익 IPS의 실적 호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원익IPS는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70%에 이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련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8일 반도체 전자상거래사이트 디램익스체인지는 2015년 D램 시장 전체 매출 규모를 541억 달러(60조3000억원)로 예측했다. 올해보다 16% 성장한 수치다. D램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미국)이 삼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 3분기 점유율 합계는 사상 최대(68.2%)로 70% 돌파를 눈앞에 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7라인과 M14 등 증강된 설비 가동을 준비 중이다. 미세화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 당사의 주요 고객들은 공정 안정화를 위해 엄격한 품질검증 및 품질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규 경쟁자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가에서는 원익IPS의 3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음에도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유익동 동부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이유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83%를 증가하면서 턴어라운드 기조를 유지했고 3분기 지연된 매출이 4분기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연구원은 이어 "특히 삼성전자 17라인 D램 증설 관련 수주 및 추가적인 3D 낸드 증설에 따른 장비수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각각 55%, 106.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영록 기자 syr@

윈스, 40G급 트래픽 제어 DPI 기술 특허

정보보호 핵심기술 46건 보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40G급 대용량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 인지와 제어할 수 있는 DPI 기술(Deep Packet Inspection)이 나왔다.

윈스는 '고속 애플리케이션 인지 시스템 및 처리 방법'에 관한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술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패킷 헤더정보 검색만으로 애플리케이션 인지·제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40G급 대용량 트래픽에 대해서도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인지·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세션(서브세션 포함)과 애플리케이션 ID를 연결시킨 캐시 테이블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유지·관리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별 제어가 가능해 애플리케이션 인지·제어를 위한 장비 부하가 최소화되는 효과를 가진다.

윈스 조희수 연구개발 본부장 "이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기 위해 하드웨어 기반의 캐시 테이블을 활용하였으나 향후에는 자주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영역까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로 고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윈스는 이번 특허 취득으로 정보보호제품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의 특허를 46건 보유하게 됐다.

정유현 기자 yhssoo@



한국가스공, LNG캐나다 사업 지분매각 유찰

입찰자 없어 내년 매각 재추진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실시한 LNG캐나다 사업 지분 매각이 결국 유찰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내년에도 다시 매각을 추진해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실시한 LNG캐나다 사업 지분 매각 본입찰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미 LNG 캐나다 지분 5%를 조기 매각했다"며 "공기업 부채 감축 일환으로 시작한 지분 매각 인내를 내년에도 다시 재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NG캐나다 사업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키터벙 지역에서 연간 1200만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이 지역의 셰일가스를 액화해 LNG 아시아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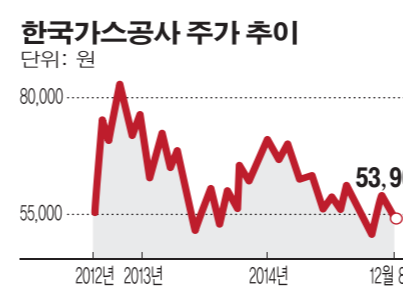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 쉘(40%), 페트로차이나(20%), 미쓰비시(20%)와 함께 지분 20%를 투자했다. 그러나 올해 공기업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LNG캐나다 사업 지분 1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당초 매각 계획은 지분 10%였으나 상황에 따라 매각 지분을 늘리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NG캐나다 사업 지분이 매물로 나오자 국내 한 대기업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이 대기업은 심사단을 꾸려 현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분 인수를 검토했지만 본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IB 업계에서는 실제로 사업성이 없어 유찰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가스공사가 현재까지 투자한 비용은 약 1300억원(1억2500만달러). 2018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3000억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셰일가스 생산량 및 상업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해당 대기업 관계자는 "해의 실사까지 했지만 대외적인 상황과 대내적인 상황이 일정적으로 얽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정 이슈 한 가지 때문에 인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NG캐나다 사업 지분이 매물로 나오자 국내 한 대기업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이 대기업은 심사단을 꾸려 현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분 인수를 검토했지만 본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IB 업계에서는 실제로 사업성이 없어 유찰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가스공사가 현재까지 투자한 비용은 약 1300억원(1억2500만달러). 2018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3000억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셰일가스 생산량 및 상업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해당 대기업 관계자는 "해의 실사까지 했지만 대외적인 상황과 대내적인 상황이 일정적으로 얽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정 이슈 한 가지 때문에 인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유진로봇 '청소기' 中 문지방 넘는다

유진로봇이 내년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해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8일 유진로봇 관계자는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 구입하는 품목 중 로봇청소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중국시장에도 진출해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진로봇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의 국내 면세점 입점수가 지난해 대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 한국산 로봇청소기가 있어야 중국에서 중산층으로 인정받는다는 말까지 돌 정도로 로봇청소기가 인기 품목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유진로봇은 인천공항, 신라호텔, 워커히호텔 등 국내 전역의 면세점에 입점하고 있다.

한편, 유진로봇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제51회 '무역의 날'에 서비스로봇 기업 최초로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올해부터 급증한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의 수출증가에 힘입은 결과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진로봇은 지난 9월까지 총 1450만달러를 수출, 로봇청소기 국내

유진로봇이 내년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해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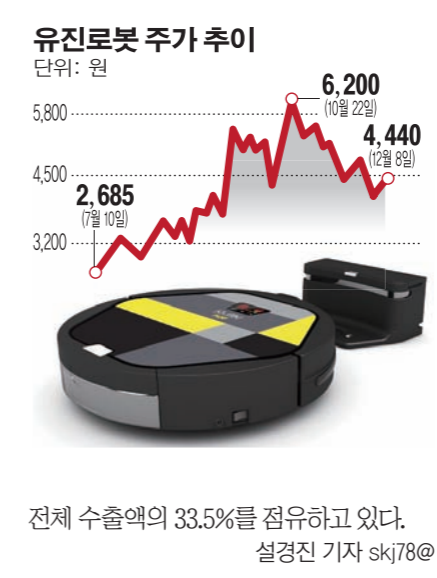
8일 유진로봇 관계자는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 구입하는 품목 중 로봇청소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중국시장에도 진출해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진로봇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의 국내 면세점 입점수가 지난해 대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 한국산 로봇청소기가 있어야 중국에서 중산층으로 인정받는다는 말까지 돌 정도로 로봇청소기가 인기 품목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유진로봇은 인천공항, 신라호텔, 워커히호텔 등 국내 전역의 면세점에 입점하고 있다.

한편, 유진로봇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제51회 '무역의 날'에 서비스로봇 기업 최초로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올해부터 급증한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의 수출증가에 힘입은 결과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진로봇은 지난 9월까지 총 1450만달러를 수출, 로봇청소기 국내



전체 수출액의 33.5%를 점유하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FIND YOUR SIGNATURE

삼성스마트카메라 **NX1**



삼성스마트카메라 **NX1**

• 2,820만 화소 BSI CMOS 이미지 센서 • 초고속 연사(초당 15fps)와 초고속 AF(0.055초) • 고화질 4K/UHD 동영상 촬영 • 견고한 마그네슘 합금 바디

*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를 참조하세요.

삼성전자 